

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PAL)



포항지능로봇연구소(PIRO)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NCNT)



생명공학연구센터

포스코 · 연관단지



포스코전경



연관단지



포스코역사관



효자아트홀

도로 · 교량



서포항 IC



포항철강공단 - 건천 IC간 산업도로



포항~삼척(동해중부선) 철도기공식



신형산교



섬안큰다리



연일대교

교통시설



포항공항



포항고속버스터미널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역



포항여객선터미널

중앙상가 실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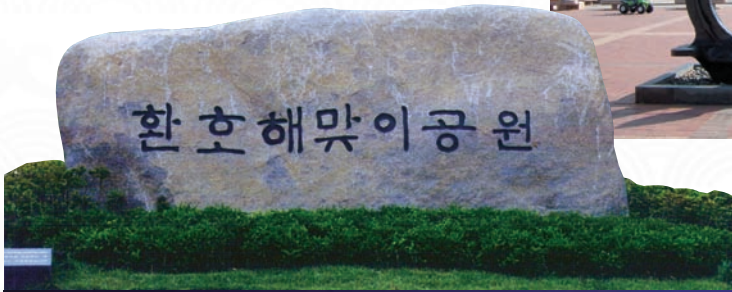
동빈내항



동빈내항 마스터플랜



환호해맞이공원



해도근린공원과 구룡포 근대가옥



해도근린공원



구룡포 근대가옥

죽도시장



이명박대통령 죽도시장 방문



특산물



포항구룡포과메기



포항시금치



장기산딸기



포항부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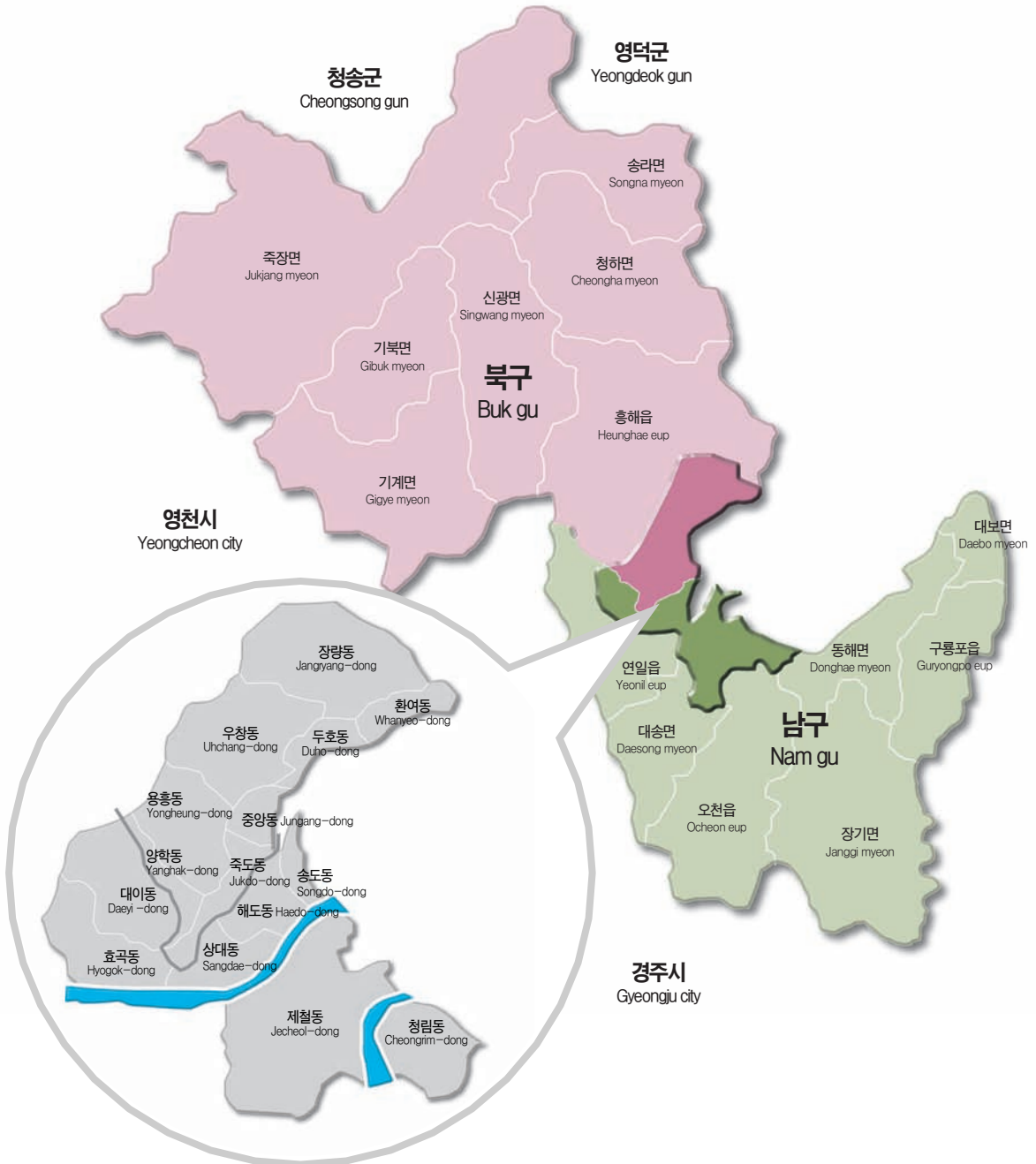


포항사과



호미곶돌문어

| 포항시 행정구역 |



浦項市史

제3편 정치

- 제1장 중앙정치
- 제2장 지방자치

제4편 행정

- 제1장 행정
- 제2장 사법·검찰

제5편 산업경제

- 제1장 농업·축산·임업
- 제2장 광업·공업
- 제3장 수산업
- 제4장 해운항만업
- 제5장 상업·금융업

제6편 사회복지

- 제1장 인구
- 제2장 사회복지
- 제3장 사회단체
- 제4장 환경보전
- 제5장 정보통신
- 제6장 고난과 갈등을 딛고 도약하는 포항

제7편 교육·종교

- 제1장 교육
- 제2장 종교



제3편 정치

제1장 중앙정치

제1절 한국정치의 흐름 • 17



제2절 건국 초기 • 18

1. 제헌의원 선거 • 19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20
3.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 22
4. 제3대 민의원 의원 선거 • 23
5.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 25
6. 제4대 민의원 의원 선거 • 26
7.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 29
8. 제5대 민의원 의원 및 초대 참의원 의원 선거 • 30

제3절 광복 후의 반공투쟁 • 33

1. 좌익의 활동과 반공투쟁 • 33
2. 공비의 만행 • 36

제4절 6.25전쟁과 포항지역의 전란 • 38

1. 6.25전쟁 • 38
2. 포항지역 전투 • 39
3. 기계·안강 부근 전투 • 53
4. 포항 경찰의 6.25 전투 • 60
5. 기념시설물 • 61

제5절 경제개발 시대 • 63

1. 제5차 개헌 국민투표 • 63
2. 제5대 대통령 선거 • 64
3.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64
4. 제6대 대통령 선거 • 65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66

6. 제6차 개헌 국민투표 • 66
7. 제7대 대통령 선거 • 67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68

제6절 유신시대 • 69

1. 제7차 개헌 국민투표 • 69
2.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70
3.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70
4. 헌법신임 국민투표 • 71
5.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71
6.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72

제7절 신군부 시대 • 73

1. 제8차 개헌 국민투표 • 73
2.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와 제12대 대통령 선거 • 74
3.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74
4.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75
5. 제9차 개헌 국민투표 • 75
6. 제13대 대통령 선거 • 76
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77
8.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78

제8절 민주화 이후 • 79

1. 제14대 대통령 선거 • 79
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79
3. 제15대 국회의원 포항북구 보궐선거 • 80
4. 제15대 대통령 선거 • 81
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81
6. 제16대 대통령선거 • 82
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83

제9절 이명박 시대의 열림 • 84

1. 제17대 대통령선거 • 84
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85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시대 개막 • 88

1. 초대 · 제2대 지방자치 선거 • 88
2. 제3대 지방자치 선거 • 91
3. 제4대 지방자치 선거 • 92
4. 포항시 · 영일군의회 출범 • 99

제2절 통합 포항시의회 • 104

1. 통합 시의회 구성 배경과 경위 • 104
2. 통합 포항시의회 개원 • 105
3. 의회 일반 현황 • 106

제3절 제1기 광역 · 기초 동시 지방자치제의 실현 • 108

1. 포항시의회 의원선거 • 108
2.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 115
3. 기초자치단체장 (포항시장) 선거 • 116
4.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선거 • 116
5. 포항시의회 개원 • 117

제4절 제2기 광역 · 기초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 122

1. 제3대 포항시의회 의원선거 • 123
2.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 126
3. 기초자치단체장(포항시장) 선거 • 127
4.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선거 • 127
5. 포항시의회 의원 당선자 직업 · 연령 · 학력 · 당선 경력별 현황 • 128
6. 제3대 통합 포항시의회 개원 • 129

제5절 제3기 광역 · 기초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 133

1. 제4대 포항시의회 의원선거 • 133
2.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 137
3. 기초자치단체장(포항시장)선거 • 138
4.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선거 • 138
5. 포항시의회 의원 당선자 직업 · 연령 · 학력 · 당선경력별 현황 • 139
6. 제4대 포항시의회 개원 • 140

제6절 제4기 지방자치선거 • 144

1. 제5대 포항시의회 의원선거 • 145
2.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 151
3. 기초자치단체장 (포항시장) 선거 • 152
4.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선거 • 152
5. 제5대 포항시의회 개원 • 155
6. 포항시의회 신청사시대 개막 • 159
7. 기 타 • 160

제4편 행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구역 • 163

1. 광복이후~1960년대의 행정구역 • 165
2. 1970년대의 행정구역 • 167
3. 1980년대의 행정구역 • 170
4. 1990년대의 행정구역 • 172
5. 2000년대의 행정구역 • 174

제2절 일반행정 • 176

1. 인 사 • 176
2. 직 제 • 178
3. 공무원 • 192
4. 행정기관 • 198

제3절 도시건설 • 249

1. 연도별 도시계획 현황 • 249
2. 도로 현황 • 254
3. 교통현황 • 259
4. 하천 현황 • 261
5. 교량 현황 • 262





6. 상·하수도 · 264
7. 주 택 · 269
8. 도시공원 현황 · 272
9. 도시환경 · 273
10. 보건위생 · 282
11. 호미곶 관광지 개발 · 290
12.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 293
13. 영일지구 사방사업과 사방기념공원 조성 · 296
14. 선진일류 친환경도시 글로벌 포항건설 · 298

제4절 재 정 · 311

1. 지방재정제도 · 311
2. 포항시의 재정 · 312

제5절 포항시 연혁 · 319

제6절 포항시 4읍 · 10면 연혁 · 326

제2장 사법 · 검찰

제1절 법원 · 검찰 · 34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341
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343

제2절 기타 사법관련 기관 · 346

1. 포항교도소 · 346
2. 포항보호관찰소 · 348

제5편 산업경제

제1장 농업 · 축산 · 임업

제1절 농 업 · 353

1. 농가 및 농가인구 · 353
2. 경지면적 및 정리 현황 · 356
3. 농산물 생산 · 358
4. 농업기술센터 · 363
5. 농업협동조합 · 366
6.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 368

제2절 축산업 · 369

1. 축산 기본현황 · 369
2. 포항축산협동조합 · 370

제3절 임 업 · 372

1. 산림정책의 변화 · 372
2. 소유별 임야면적 · 372
3. 조림 현황 · 373
4. 조 림 · 374
5. 사방사업 · 375
6. 포항시 산림조합 · 375

제2장 광업 · 공업

제1절 광 업 · 379

1. 광산물 생산량 · 379
2. 광종별 광구수 · 380

제2절 공 업 · 380

1. 포항공업의 태동기 · 380
2. 포스코 · 383
3. 포항공업단지 · 390
4. 포항공업의 발전기 · 402
5. 2000년대 포항 제조업 · 407





제3장 수산업

제1절 포항수산업의 성립배경 • 415

제2절 포항수산업의 인프라조성 • 416

제3절 포항의 근대 대표 어업 • 417

1. 고등어 어업 • 417
2. 정어리 어업 • 418
3. 포경업 • 419

제4절 포항 수산업의 성쇠 • 421

1. 포항수산업의 발전 과정 • 421
2. 수산물 생산현황 • 425
3. 어선의 현황과 어업허가 및 신고추이 • 427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 • 독도수산센터 • 429

1. 수산업협동조합의 현황 • 429
2. 독도수산센터 • 432

제6절 염업 • 433

제4장 해운항만업

제1절 포항항의 생성과 해운업 • 435

제2절 포항항의 성장기 • 436

1. 포항항만의 능력 • 437
2. 포항항의 물동량 해운화물 수송 • 439
3. 포항항의 재정 • 443

제3절 포항항의 융성기 • 445

1. 포항항의 항세(港勢) • 445
2. 포항항의 운영 현황 • 446
3. 포항항의 하역업 및 부대사업,
포항영일 신항만 주식회사 • 448

제4절 포항항의 전망 · 451

1. 영일만 신항개발 · 451
2. 영일만항 개항 · 452
3. 영일만항의 경쟁력 · 454
4. 자유무역지역과의 조화 · 455
5. 영일만항의 비전 · 455

제5장 상업 · 금융업

제1절 상 업 · 457

1. 포항상업의 성립 · 457
2. 포항 상업의 성장기 · 459
3. 유통근대화와 죽도시장의 성쇄 · 463
4. 대형유통기관의 출현과 재래시장 · 465
5. 죽도시장의 활성화와 대형유통기관의 진출 · 470
6. 포항상공회의소 · 474

제2절 금융업 · 482

1. 포항금융의 형성기 · 482
2. 포항금융의 성장기 · 484
3. 포항금융의 발전기 · 485
4. 포항금융의 변혁기 · 491
5. 포항의 금융기관 · 494



제6편 사회복지

제1장 인 구

제1절 인구변천 · 505

1. 시·군 통합전의 인구 · 506
2. 포항시(통합 포항시) · 509



3. 인구 이동상의 특성 • 509
4. 2000년 이후의 인구 현황 • 511
5. 포항시 인구 변화와 추이 • 516

제2장 사회복지

제1절 포항의 사회복지 • 523

1. 포항시 사회복지의 역사 • 523
2. 포항시 사회복지 자원현황 • 536

제2절 자원봉사 • 545

1. 자원봉사센터 현황 • 548
2. 자원봉사 주요사업 • 549

제3장 사회단체 • 553

1.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 554
2. 보훈단체 • 558

제4장 환경보전

제1절 환경의식과 환경행정의 변천 • 561

1. 환경위생 대두시기 • 561
2. 공해문제 대두시기 • 562
3. 환경오염문제 대두 • 562
4. 환경보전문제 대두 • 563
5. 환경생태 및 자원화문제 대두 • 563

제2절 환경관리 • 565

1. 대기환경관리 • 566
2. 수질환경관리 • 568

제3절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 갈등 • 577

1. 하천오염사고 현황 • 577
2. 주요 환경갈등 및 환경이슈 • 578

제4절 해양환경 • 590

1. 지 형 • 590
2. 해양물리환경 • 591
3. 수질현황 • 594
4. 오염사고 • 595

제5절 민간 환경단체 환경운동 • 597

1. 포항녹색소비자연대 • 597
2. 푸른 포항21 추진협의회 • 598
3. 포항환경운동연합 • 599
4.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동부환경관리 협의회 • 600
5. 형산강 환경지킴이 • 601

제6절 포항지역대상 환경문제 연구논문 및 자료 • 602

1. 논 문 • 602
2. 단행본 • 604

제5장 정보통신

제1절 포항시의 우편시설 및 우편물 수입 • 605

1. 포항시의 우편 시설 • 605
2. 포항시 우편물 이용 및 수입현황 통계 • 606

제2절 포항시 전신 및 전화시설과 이용 현황 • 608

1. 포항시 전보 이용 현황 • 608
2. 포항시의 유선전화 시설 • 609

제3절 행정전산망 구축 • 610

제4절 개인 휴대전화 서비스 • 612

제5절 인터넷 서비스와 및 개인용 컴퓨터 보급 • 613



제6장 고난과 갈등을 딛고 도약하는 포항

제1절 시민사회와 산·관의 성장통 ·615

1. 포스코 사명 변경 갈등 ·615
2. 시군 통합과 구청 폐지안 번복 ·616
3. 한동대 사태 ·618
4. 포항시 신청사 이전과 도심공동화 ·621
5. 성시화 운동과 종교편향 갈등 ·624
6. 포항건설노조 사태 ·627
7. 한국은행 포항본부 존치 운동 ·630
8. 포스코 40주년 기념 명명 ·632
9. 경북도청 유치 운동 ·634
10. 새마을 발상지 논란 ·637
11. 포항시 상징 조형물 건립 논란 ·641

제2절 포항 성장엔진과 미래비전 ·642

1. 글로벌 첨단경제과학도시를 향한 도전 ·642
2. 글로벌 생태환경도시를 향한 노력 ·646
3.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향한 신념 ·647

제7편 교육 종교

제1장 교 육



제1절 교 육 ·651

1. 현대교육의 도입 ·651
2. 해방기 포항교육의 변모 ·652
3. 민족중흥기 포항교육 ·654
4. 교육개혁 운동과 교육자치제 ·656
5. 무한경쟁시대의 교육 ·657
6. 오늘날 포항 교육 ·661
7. 포항교육청 연혁 ·665

- 8. 역대 교육장 • 669
- 9. 각급 교육기관 현황 및 주요 연혁 • 671
- 10. 교육 지원 기관 • 706
- 11. 대학교육 • 708
- 12. 사학 법인 • 719
- 13. 공익법인(장학재단) 현황 • 720
- 14. 교육자치제 • 720

제2장 종 교

제1절 불교계 • 725

제2절 기독교계 • 732

제3절 천주교 • 745

제4절 민족종교계 • 747

- 1. 원불교 • 747
- 2. 선불교 • 747
- 3. 증산교 • 747
- 4. 대순진리회 • 748

제5절 유입종교계 • 748

- 1. 남묘호렌갯교 • 748
- 2. 세계메시아교 • 748
- 3. 이슬람교 • 749





제3편 정치

제1장 중앙정치

제2장 지방자치

제1장 중앙정치

제1절 한국 정치의 흐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반도에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와 그 밖의 좌파세력이 곧바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던 김구·이승만 등은 뒤늦게 귀국하여 우파 민족진영을 형성하였다.

그해 말 연합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이에 반대하는 우익 민족진영과 찬성하는 좌익 공산진영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다음해에 서울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은행권을 대량 위조하고 전국 각처에서 파업을 선동하여 경제를 교란시키며 대구 10.1사건 등 여러 차례 폭동을 일으켜 살인 방화의 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지하로 잠입하여 빨치산 무장활동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신탁통치안과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가 벽에 부딪치자 1947년 가을 UN총회에서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문제를 상정하여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UN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였다. 1948년 초에 그 대표단이 내한하였으나 소련이 입북을 거절함에 따라 2월 26일에 UN소총회가 ‘가능지역 선거’를 결의하여 5월 10일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공산진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치러져 그해 5월 31일에 의원 200명의 제헌국회를 개원하였으며,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 국회에서 헌법을 가결하고 7월 17일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는 7월 20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8월 15일에 마침내 미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해방 후 3년 만에 독립을 성취한 것이다.

정부수립 후 2년도 안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이 전면적으로 남침해왔다. 국토의 대부분이 유린당하면서 정부는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으며 그 후 3년 동안 전화(戰禍)에 시달리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3년 1개월 여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다.

1960년에 제4대 정·부통령선거의 부정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총선거가 치러져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등 군인 일부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헌법에 의한 통치가 중단되면서 헌법을 대체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한 군사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후 대통령제의 새 헌법을 만들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군부 중심의 민주공화당이 집권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1969년에는 대통령 3선 금지조항 삭제의 개헌을 단행하였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통령 간선제와 삼권분립 제도를 폐기한 권력통합형의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영구집권을 꾀하였다.

유신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1979년에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나고 10월에 김재규 등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민주주의 부활의 호기를 맞았으나 12월에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이 이른바 ‘12.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으며 이듬해 5월에 광주항쟁이 일어났다.

군부의 집권이 계속되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1987년에 이른바 ‘6.29선언’이 나오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성립되면서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선거 이후 민간인에 의한 정부가 성립되었다.

2007년에는 포항 출신인 이명박 씨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포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었으며 전 국민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건설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제2절 건국 초기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부터 1961년 5월 16일의 5.16군사정변 이전까지의 건국초기 정치를 이 절에 다룬다. 이른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헌의원 선거에서는 영일군(현재의 포항시 영역)이 ‘갑구’·‘을구’ 두 선거구로 나뉘져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거구가 포항시와 영일군 ‘갑구’·‘을구’로 나뉘져 3명의 국회의원이 뽑혔다.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에 의한 폭압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으나 포항시 선거구에서 민권 승리의 빛나는 역사를 남겼다. 제4대 민의원의원선거에서 영일군

‘을구’는 후보등록문제로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다시 심각한 선거부정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는 재재선거를 치렀다.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에서 선거부정이 자행되자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허정 과도내각이 수립되고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제4대 민의원이 내각제개헌을 마무리 짓고 자진 해산한 후 1960년 7월 29일에 새 헌법에 의한 제5대 민의원의원과 초대 참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때 지방자치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 제헌의원 선거

1948년 2월 26일 UN소총회가 한반도의 38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여 UN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우리 역사에 처음인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주의 선거 4원칙에 따른 총선거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인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약칭 남로당) 진영에서는 전국적으로 선전선동과 테러로 방해하였고 민족진영의 일부 정치세력도 남북합작을 주장하며 불참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무사히 선거가 종료되었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치른 정치적 경험이 없어 정강정책 보다는 개인적 친소관계나 혈연과 지연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틀이 잡히지 못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당은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약칭 한민당) 뿐이었으며 여러 사회단체들이 정당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선거는 인구 10만 명 기준의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전국 200개 의석 가운데서 경상북도가 33개 의석을 차지하였고 당시의 영일군은 ‘갑구’·‘을구’ 두 선거구로 나뉘어 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갑구’지역은 포항읍·흥해면·곡강면(뒤에 흥해에 편입)·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현재의 기계면과 기북면)·죽장면이었고, ‘을구’지역은 구룡포면(현재의 구룡포읍과 대보면)·지행면(현재의 장기면)·달전면(뒤에 흥해와 연일에 분할 편입)·오천면·동해면·대송면·연일면이었다.

영일군 ‘갑구’의 후보등록자는 6명이었으나 1명이 사퇴하여 나머지 5명의 각축이었다. 무소속의 박순석 후보가 10,48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영일군 ‘을구’의 후보등록자는 4명이었으나 역시 1명이 사퇴하여 3명이 경합하였다. 무소속의 김익로 후보가 13,54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헌의원선거 영일군 ‘갑’ 선거구 득표상황 (1948. 5. 1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李源萬	남	45	영일군 신광면	회사 중역		한국민주당	9,119	
朴順碩	"	45	영일군 흥해면	목사	京城神學校 졸, 長老會전도사	무소속	10,485	당선
崔泰能	"	40	영일군 흥해면	농업	京城徽文中 졸, 흥해중학교재단이사장5년	무소속	8,208	
崔二鳳	"	31	영일군 포항읍 신흥동	무직	중졸, 읍서기20년	대동청년단	4,837	
金基碩	"	49	영일군 포항읍 신흥동	노동	중졸, 읍서기7년	대한독립노동총연맹		사퇴
崔遠壽	"	37	영일군 포항읍 신흥동	무직	소졸, 읍서기, 청년운동, 영일군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879	

제헌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득표상황 (1948. 5. 1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河泰煥	남	33	영일군 포항읍 신흥동	중학교장	日本立命館大學졸, 중학교장	무소속		사퇴
金益魯	"	44	영일군 연일면	신문 지국장	소졸, 청년운동	무소속	13,545	당선
金判錫	"	30	영일군 포항읍 죽도동	무직	고등보통졸, 청년운동	대동청년단	10,325	
朴東柱	"	49	영일군 포항읍 용흥동	농업	소졸, 공무원20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8,361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949년 8월 15일에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영일군에서 분리되어 모두 3개 선거구였다.

1) 포항시 선거구

포항시 선거구는 13인의 후보자가 난립하였다.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약칭 韓靑)의 위세가 커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압도했다. 대한청년단을 배경으로 한 김판석 후보가 3,157표를 얻고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선거구 득표상황 (1950. 5. 3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朴順碩	남	47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회 의원	제헌국회의원, 신학교졸	무소속	2,465	
邊錫花	여	41	포항시 중앙동	의사	전졸, 포항여중강사	무소속	957	
崔俊鳳	남	31	포항시 덕수동	실업	대졸, 포항중학교감	무소속	970	
金判錫	"	30	포항시 죽도동	농업	전문중퇴, 한청(韓靑)포항시단장	한청	3,157	당선
金敏敦	"	43	포항시 대흥동	상업	소졸, 포항전매서장	한청	807	
金鎰祚	"	42	포항시 동빈동	수산업	대졸, 한국공문사취체역	대한노총해상연맹	1,717	
黃甲伊	"	40	포항시 상원동	농업	소졸, 농업20년	무소속	296	
朴東柱	"	54	포항시 용흥동	농업	중졸, 영일군농민회간부	국민회	756	
姜嘯錫	"	45	포항시 동빈동	수산업	고등상업졸, 포항소방서장	무소속	2,671	
崔二鳳	"	33	포항시 신흥동	신문사 지국장	주계학교(主計學校)졸, 대구신문동해지국장	무소속	1,391	
白弘基	"	28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농업	東京中學졸, 신정회경북조직담당자	무소속	753	
裴洙仁	"	46	대구시 상서동	제염업	전졸 포항시교육회, 부위원장	무소속	1,905	
李炳坤	"	48	서울 종로구 동숭동	회사 취체역	대학중퇴, 범아상사주식회사취체역	무소속	909	

제2대 국회의원선거 영일군 '갑' 선거구 득표상황 (1950. 5. 3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金斗水	남	36	영일군 청하면	농업	소졸, 상업일보경북지사장	대한노총	1,556	
崔遠壽	"	39	포항시 덕수동	신문 지사장	京都立命館大學에과2년중퇴, 군수, 포항신문사사장	무소속	7,970	당선
金容圭	"	29	영일군 청하면	농업	대졸, 포항중학교사	무소속	2,087	
李殷雨	"	58	영일군 기계면	농업	소졸, 영일군국민회부회장	무소속	6,285	
崔弘俊	"	31	영일군 흥해면	농업	전문학교중퇴, 흥해중학교강사	한청(韓靑)	4,457	
朴權祚	"	52	대구시 봉산동	농업	경북잠사학교졸, 수리조합장	무소속	4,350	
李洪圭	"	57	영일군 흥해면	농업	경북도립농업졸, 흥해중학교이사장	무소속	2,075	
崔泰能	"	42	영일군 흥해면	농업	중졸, 흥해중학이사장	무소속	6,218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득표상황 (1950. 5. 3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徐廷舜	남	45	영일군 지행면	상업	전졸, 판사	무소속	5,334	
金益魯	"	46	영일군 연일면	국회의원	소졸, 국회의원	무소속	6,988	당선
河泰煥	"	38	포항시 신흥동	교육가	日本立命館大學졸, 영일군학도호국단장	무소속	6,100	
金憲秀	"	44	부산시 수정동	수산업	소졸, 부산산업공사사장	무소속	4,431	
張道洙	"	35	영일군 지행면	농업	전졸, 양포국민학교후원회장	무소속	2,873	
崔長洙	"	35	영일군 구룡포읍	상업	상선학교졸, 육군예비역소위	한 청	5,209	
鄭元永	"	36	영일군 연일면	목재상	중졸, 동회장	무소속	1,151	
朴光潤	"	40	영일군 연일읍	농업	소졸, 연일국민학교후원회장	무소속	1,499	

2) 영일군 갑·을 선거구

영일군 '갑구'는 영일군의 흥해·신광·곡강·청하·송라·기계·죽장 등 7개면이었다. 최원수 후보가 7,97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영일군 '을구'는 구룡포·달전·연일·대송·오천·동해·지행 등 7개면이었다. 김익로 후보가 6,98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3.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이 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8월 17일에 있었다. 정부가 임시수도인 부산에 머물던 중 제1차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제2대 대통령 선거 득표상황 (1952. 8. 17)

후보자 지역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당선자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曹奉岩	李承晩	李始榮	申興雨	계	
전 국		8,259,428	7,275,883 (88.1)	797,504	5,238,769 (74.6)	764,715	219,696	7,020,684	255,199 983,545
경 북		1,416,726	1,269,863 (89.6)	129,791	921,988 (75.0)	140,271	37,100	1,229,150	40,713 146,863
포 항 시	(구) 포항시	22,185	19,856 (89.5)	1,994	15,471 (80.0)	1,580	298	19,343	513 2,329
	(구) 영일군	80,374	76,542 (95.2)	3,284	65,925 (88.1)	4,528	1,100	74,837	1,705 3,832
	계	102,559	96,398 (94.0)	5,278	81,396 (86.4)	6,108	1,398	94,180	2,218 6,161

제3대 부통령 선거 득표상황 (1952. 8. 17)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당선자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威 台 永	李 範 奭	기타후보	계	
전 국		8,259,428	7,270,882 (88.0)	2,943,813 (41.3)	1,815,692	2,373,792	7,133,297	137,585 988,546
경 북		1,416,726	1,269,117 (89.6)	716,794 (57.4)	97,256	433,783	1,247,833	21,284 147,609
포 항 시	(구) 포항시	22,185	19,836 (89.4)	11,293 (57.7)	2,179	6,085	19,557	279 2,349
	(구) 영일군	80,374	76,559 (95.3)	58,990 (78.0)	2,522	14,115	75,627	932 3,815
	계	102,559	96,395 (94.0)	70,283 (73.8)	4,701	20,200	95,184	1,211 6,164

* 기타후보 7인은 .. 李甲成, 趙炳玉, 任永信, 白性郁, 鄭基元, 錢鎭漢

4.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1952년의 개헌에서 대통령직선제 외에도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과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으로 나뉘인다.

1954년 5월 2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민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고 참의원의원의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당공천제가 등장하였다. 선거결과 전국적으로 집권 자유당(自由黨)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약칭 民國黨)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포항지역의 경우 선거구의 변화는 없었으며 하태환·박순석·김익로가 각각 당선되었다.

1) 포항시 선거구

이 선거에서는 처음에 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무려 4명이 사퇴하여 5명이 각축하였다. 이 선거에서 집권 자유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무제한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유력한 상대 후보의 개인연설회를 방해하며 운동원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연행하여 경찰서에 구금하며 다수 경찰병력이 야간에 후보자 가택에 난입하였다. 심지어 후보의 선거운동용 차량이 동빈동 항만에 수장되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선거 당일에도 투표가 방해되고 공공연한 무더기표가 투입되는 등 포항 선거사(選舉史)에서 전무후무한 폭압적 관권선거가 치러졌다.

이 같은 지나친 물리적 관권개입이 민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많은 시민들이 탄압 받는 후보를 동정하고 그 선거운동을 자원하는 사람이 속출하여 지지세가 급증하면서

24 제3편 정치

선거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유권자의 자각과 투쟁으로 민권 승리를 쟁취한 포항의 선거혁명이었다.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포항시 선거구 득표상황 (1954. 5. 2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金浩龍	남	49	대구 덕산동	무직	上野美術學校졸, 숙명대학강사	무소속	사퇴	
文達植	"	37	포항 대신동	수산업	포항수산졸, 소방서장	무소속	3,209	
金海鎭	"	35	포항 신흥동	농업	중졸, 대한노총포항시위원장	무소속	230	
河泰煥	"	41	포항 신흥동	신문, 출판업	日本立命館大學법문학부졸, 동지고등학교장	무소속	9,531	당선
金判錫	"	35	포항 죽도동	민의원 의원	대구상업졸, 민의원의원	자유당	6,553	
李國炯	"	28	포항 죽도동	농업	중졸, 시의원	무소속	사퇴	
李相朝	"	34	포항 죽도동	상업	東京大成中學졸, 시의원	무소속	"	
姜疇錫	"	48	포항 동빈로 2가	수산업	高松高商졸, 도의원	무소속	1,642	
崔俊鳳	"	35	포항 신흥동	농업	東京中央大學법학부졸, 포항중학교감	자유당	사퇴	

2) 영일군 갑·을 선거구

이들 선거구에서도 공공연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갑구’에서는 박순석 후보가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어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제3대 민의원의원 영일군 ‘갑’ 선거구 득표상황 (1954. 5. 2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崔泰能	남	45	영일 흥해면		수원고농1년중퇴, 재단학원이사장	민국당	3,186	
崔基胤	"	56	영일 신광면	농업	한문수료, 국민학교사친회장	무소속	473	
崔弘俊	"	33	영일 흥해면	농업	전문교2년중퇴, 청년단영일군단부부단장	무소속	5,494	
黃甲伊	"	43	포항 상원동	농업	日大야간부3년졸	무소속	226	
崔遠壽	"	41	포항 덕수동	민의원 의원	소졸, 군수, 수리조합장	무소속	7,172	
朴順碩	"	49	영일 기계면	목사	한국신학대학졸, 민의원, 자유당군위원장	자유당	19,529	당선

영일군 ‘을구’에서는 김익로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김익로는 국회에서 징계분과위원장과 전원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득표상황 (1954. 5. 20)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權亨祚	남	52	대구시 태평로	수산업	수원고농졸, 교육시보발행인	무소속	999	
金益魯	"	49	영일군 연일면	민의원의원	소졸, 민의원	자유당	26,366	당선
金憲秀	"	47	영일군 대송면	상공업	東京文理校졸, 회사사장	무소속	9,161	

5.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제헌 당시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은 1차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이 철폐되고 난 뒤 1955년 5월 15일에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어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 열기가 확산되었으나 선거운동 중 5월 5일 신익희 후보가 급서하고 다른 유력한 후보가 없어 대통령에 이승만이 쉽게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장면 후보가 당선되어 정·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이변을 낳았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신익희에 대한 추모투표로 무효투표가 많았다.

제3대 대통령 선거 득표상황 (1956. 5. 15)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수 무효표율(%)	기권수
				曹 奉 岩	李 承 晩	계		
전 국		9,606,870	9,067,063 (94.4)	2,163,808 (30.0)	5,046,437 (70.0)	7,210,245	1,856,818 (20.5)	539,807
경 북		1,492,013	1,398,722 (93.7)	501,917 (44.7)	621,530 (55.3)	1,123,447	275,275 (19.7)	93,291
포 항 시	(구) 포항시	21,631	20,412 (94.4)	5,938 (41.4)	8,511 (58.9)	14,449	5,963 (29.2)	1,219
	(구) 영일군	80,233	78,014 (97.2)	5,387 (7.5)	65,968 (92.5)	71,355	6,662 (8.5)	2,216
	계	101,864	98,429 (96.6)	11,325 (13.2)	74,479 (86.8)	85,804	12,625 (12.8)	3,435

부통령선거에서 장면이 당선되었으며 포항시는 장면 후보가 이기붕 후보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영일군은 이기붕의 득표가 장면의 6~7배에 이르러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인 이른바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을 보였다.

제4대 부통령 선거 득표상황 (1956. 5. 15)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張 勉	李 起 鵬	기타후보	계	
전 국	9,606,870	9,064,194 (94.4)	4,012,654 (46.4)	3,805,502 (44.0)	824,338 (9.5)	8,642,494	421,700 542,676
경 북	1,492,013	1,398,163 (93.7)	715,342 (54.4)	475,754 (36.1)	125,072 (9.5)	1,316,168	81,995 93,850
포 항 시	(구) 포항시	21,631	20,457 (94.4)	7,941 (46.3)	7,415 (43.3)	1,784 (10.4)	3,317 1,174
	(구) 영일군	80,233	78,251 (97.2)	9,384 (12.3)	64,227 (84.4)	2,470 (3.2)	2,170 1,982
	계	101,864	98,708 (96.6)	17,325 (18.6)	71,642 (76.9)	4,254 (4.6)	5,487 3,156

※ 기타후보는 , 李允榮, 白性郁, 李範奭 등 4인임.

6.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에 전국에서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헌법상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뉜 양원제였으나 그 때까지 참의원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참의원을 구성할 법적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1) 포항시 선거구

포항시 선거구에는 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무자비한 정치탄압이 민심 이반을 가져왔던 사태를 경험하여 노골적인 관권 개입도 거의 사라졌다.

선거 결과 하태환 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하태환은 4대 민의원에서 국방분과위원장을 지냈고 4.19 이후 자유당 부총무를 역임하면서 순탄한 정권교체를 위하여 활약하였다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포항시 선거구 득표상황(1958. 5. 2)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단 체 명	득 표 수	비 고
金丙俊	남	50	포항시 동빈동	수산업	대구고보(大邱高普)졸, 회사사장	무소속	4,150	
李相冕	"	39	포항시 동빈동	상업	대졸, 시당위원장	민주당 (공천)	4,226	
河泰煥	"	45	포항시 신흥동	민의원 의원	대졸, 학교장	자유당 (공천)	13,079	당선

2) 영일군 갑·을 선거구

농촌지역인 영일군은 포항시와는 달리 무제한적인 관권개입이 이뤄졌다.

영일군 ‘갑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자유당의 박순석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갑’ 선거구 득표상황 (1958. 5. 2)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朴順碩	남	53	영일군 기계면	민의원	경성신대(京城神大)졸, 목사	자유당 (공천)	27,394	당선
崔遠壽	남	45	포항시 덕수동	무직	京都立命館大졸, 군수, 민의원	무소속	6,419	
崔泰能	남	49	영일군 의창면	농업	휘문고보(徽文高普)졸, 군당위원장	민주당 (공천)	5,698	

영일군 ‘을구’에서는 5인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나 민주당 김상순 후보의 등록이 무효처리 되고 김익로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후보자 및 득표상황 (1958. 5. 2)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金益魯	남	53	영일군 연일면	민의원	소졸, 민의원	자유당 (공천)	32,108	당선
李伸根	남	46	영일군 구룡포읍	의사	서울의대의사보습특별과정수료, 의사	무소속	4,365	
金相淳	남	41	포항시 신흥동	농업	滿洲哈爾賓國立大學 3년 졸, 지구당위원장 중앙위원	민주당 (공천)	등록 무효	
金宗元	남	35	서울시 종로구	무직	대졸, 치안국장	무소속	사퇴	
崔長壽	남	42	영일군 구룡포읍	무직	소졸, 경성일보(京城日報)구룡포지국장	무소속	2,534	

※ 뒤에 선거무효판결이 선고되었음

3) 영일군 ‘을’ 선거구 재선거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뒤 김상순 씨가 후보등록 무효처리에 대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다. 김상순은 후보등록을 마쳤으나 영일군 ‘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상순이 민의원의원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규정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등록 무효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상순은 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1958년 6월 21일 대법원으로부터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했던 1958년 5월 2일의 영일군 을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승소의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58년 9월 19일에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4인의 후보자 중 자유당의 김익로 후보가 김상순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재선거 득표상황 (1958. 9. 19)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金益魯	남	53	영일군 연일면	농업	국졸, 1, 2, 3대 민의원	자유당	14,310	당선
金相淳	남	41	포항시 신흥동	농업	滿洲哈爾賓國立大學졸, 민주당영일'을구'당위원장	민주당	13,986	
金憲秀	남	51	부산시 수정동	상업	체신이원(遞信吏員)양성소수료, 한국무역협회부산지점장	무소속	2,255	
李伸根	남	46	영일군 구룡포읍	의사	서울의대 의사보습특별과 수료의사	무소속	사퇴	

※ 뒤에 선거무효판결이 선고됨

4) 영일군 을 선거구 재재선거

1958년 9월 19일의 영일군 '을구' 재선거에는 극심한 관권개입과 공공연한 부정투·개표가 자행되었다. 선거운동이나 투표에서의 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표과정에서는 고의로 단전(斷電)시켜 어둠 속에서 표 바꿔치기(속칭 울빼미)나 야당표에 중복 기표하여 무효표 만들기(속칭 피아노) 등으로 부정개표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이에 김상순 후보는 부정선거라며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1959년 11월 4일에 다시 한번 원고승소의 선거무효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재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영일군이란 지명이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이 재재선거는 1960년 1월 23일에 실시되었다. 선거구민과 국민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의식한 자유당은 김익로를 배제하고 김장섭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민주당에서도 타 지역 출신인 현석호를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그 결과는 자유당 김장섭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제4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재재선거 득표상황 (1960. 1. 23)

소속정당	후보자 성명	득표수	비고
자유당	金長涉	29,403	당선
민주당	玄錫虎	3,857	

7.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선출하는 정·부통령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집권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 제1야당인 민주당의 조병옥과 장면이 각각 후보로 나섰으나, 조병옥이 후보등록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병을 치료받던 중 선거를 20일쯤 앞둔 2월 25일에 병사하여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단일후보가 되었다. 선거 결과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집권세력은 고령인 이승만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관권을 투입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치렀다.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경찰의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선거개입이 자행되었다.

이 선거 후 전국 각처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시위가 일어나 4.19혁명으로 이어지고 이승만이 하야하여 망명함으로써 선거 자체가 백지화되고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제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60. 3. 15)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및 투표율		유효표 및 비율 (단일후보자득표)		무효표 및 무효표 비율		기권수
			투표자수	%	李承晩	%	무효표수	%	
전 국		11,196,490	10,862,272	97.0	9,633,376	88.7	1,228,896	11.3	334,218
경 북		1,673,522	1,606,566	96.0	1,403,461	87.4	203,105	12.6	66,956
포 항 시	(구) 포항시	25,777	25,514	99.0	21,619	84.7	3,895	15.3	263
	(구) 영일군	95,560	93,016	97.3	83,940	90.2	9,076	9.8	2,544
	합 계	121,337	118,530	97.7	105,559	89.1	12,971	10.9	2,807

제5대 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60. 3. 15)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李起鵬	張勉	기타후보	계	
전 국		11,196,490	10,861,573 (97.0)	8,337,059 (79.2)	1,843,758 (17.5)	346,628	10,527,445	334,128 334,971
경 북		1,673,522	1,606,671 (96.0)	1,166,341 (72.2)	340,214 (22.0)	39,045	1,545,600	61,071 66,851
포 항 시	(구) 포항시	25,777	25,528 (99.0)	19,172 (75.8)	5,693 (22.5)	440	25,305	223 249
	(구) 영일군	95,560	92,997 (97.3)	82,535 (89.4)	9,336 (10.1)	481	92,352	645 2,563
	계	121,337	118,525 (97.7)	101,707 (86.4)	15,029 (12.8)	921	117,657	868 2,812

※ 기타후보는 任永信임

8. 제5대 민의원의원 및 초대 참의원의원 선거

1) 4.19혁명

국민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고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갈망하여 오던 중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극단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각처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나고 서울로 확산되어 4.19혁명으로 발전되었다.

4월 27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의 과도내각이 성립되었으며 6월 15일에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자진 해산하여 7월 29일에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신·구파로 양분되면서 신파가 집권하는 장면내각이 탄생하였다.

2)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

4.19혁명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제4대 국회(민의원)가 해산된 다음에 제5대 민의원의원과 초대 참의원의원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포항지역의 선거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항시·영일군 ‘갑·을’ 선거구로 나뉘었다.

(1) 포항시 선거구

포항시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이상면이 당선되었다.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 포항시 선거구 득표상황 (1960. 7. 29)

기호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1	李相冕	남	41	포항시 남빈동	무직	대중퇴, 민주당포항시당위원장	민주당	12,249	당선
2	林富甲	남	31	포항시 두호동	무직	대졸, 공군중위	사회대중당	1,696	
3	朴秀榮	남	35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회사원	대중퇴, 노동조합지방조직수습위원	무소속	395	
4	河泰煥	남	47	포항시 신흥동	민의원	대졸, 3, 4대 민의원	무소속	8,036	
5	鄭長出	남	35	부산시 동구 초량동	무직	대중퇴, 한국정치협회고문	무소속	1,243	

※ 그 뒤 이상면의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선거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이듬해 당선무효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포항시 선거구로서는 처음으로 선거소송에 의하여 현역의원의 자격상실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재선거를 공고하였으나 5.16이 일어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2) 영일군 갑·을 선거구

영일군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최태능 후보가 14,94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5대 민의원의원선거 영일군 ‘갑’ 선거구 득표상황 (1960. 7. 29)

기호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1	張南守	남	34	부산시 서구 부민동	변호사	대졸, 육군법무관	무소속	5,767	
2	崔玟己	남	49	서울시 중구 초동	변호사	대졸, 제1군사령부법무부장	무소속	2,218	
3	鄭奉燮	남	44	영일군 의창면	회사원	대졸, 중학교장	무소속	3,151	
4	崔洪俊	남	39	영일군 의창면	양조업	전종퇴	무소속	7,001	
5	崔遠秀	남	47	포항시 덕수동	무직	중종퇴, 민의원	무소속	6,712	
6	崔泰能	남	51	영일군 의창면	농업	중졸, 민주당 영일군 ‘갑구’ 당위원장	민주당	14,948	당선

영일군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최해용 후보가 7,59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 영일군 ‘을’ 선거구 득표상황 (1960. 7. 29)

기호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1	金益魯	남	55	포항시 덕수동	농업	소졸, 민의원	무소속	3,309	
2	姜萬鐵	남	36	포항시 여천동	상업	대졸, 도의원	무소속	4,804	
3	金憲秀	남	53	영일군 구룡포읍	회사원	대중퇴, 동신무역주식회사대표	무소속	5,277	
4	林鍾震	남	37	영일군 오천면	농업	대졸, 교수	민주당	4,336	
5	李鍾文	남	27	영일군 구룡포읍	약종상	중졸	사회대중당	1,601	
6	鄭泰永	남	56	대구시 봉산동	무직	중졸, 신문민론사(新聞民論社)사장	무소속	3,203	
7	金鍾泰	남	35	영일군 동해면	무직	대중퇴, 도의원	무소속	4,099	
8	崔海鎔	남	39	영일군 구룡포읍	수산업	소졸, 민주당중앙위원	민주당	7,549	당선
9	金相淳	남	43	영일군 대송면	농업	滿洲할빈학원 3년졸, 조선인사설고등학교원장	무소속	1,098	
10	李相雨	남	29	영일군 동해면	무직	대졸, 대위(예비역)	무소속	279	
11	金正壽	남	27	창녕군 창녕읍	무직	대중퇴, 해병예비역장교	사회혁신당	570	

3) 초대 참의원의원 선거

초대 참의원의원 선거는 매 시·도가 1개 선거구인 대선거구제로 경상북도 선거구에서는 제1부와 제2부에서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선출하였다.

당선자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져서 제1부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제2부 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포항지역 출신 후보 중 김장섭과 이원만이 제2부로 당선되었다.

초대 참의원선거 경상북도선거구 당선자 명단 (1960. 7. 29)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득표수	비고
白南櫓	남	45	대구시 대봉동	무직	九州大법과졸, 동국대학원장	민주당	214,300	제1부
李孝祥	"	54	대구시 대명동	과수업	東京帝大졸, 경대(慶大)문리대 교수	무소속	192,167	"
宋寬洙	"	53	대구시 삼덕동	무직	대구상업졸, 지사	무소속	184,794	"
崔熙松	"	6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무직	미국마사추세츠주립공업전졸, 민의원	민주당	174,393	"
李源萬	"	5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회사원	日大중퇴, 무역협회장	민주당	165,600	제2부
權東哲	"	44	대구시 비산동	농업	同志社大졸, 경북농도원장(慶北農道院長)	무소속	154,437	"
金長涉	"	49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변호사	明大법학부졸, 민의원	무소속	154,053	"
崔達喜	"	48	대구시 봉산동	회사원	대구사범졸, 국정시보사장	한국사회당	135,160	"

제3절 광복 후의 반공투쟁

1. 좌익의 활동과 반공투쟁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광복을 맞이하자 일제의 조선 총독부 당국자로부터 미리 연통을 받은 여운형(呂運亨)은 그날 바로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이하 건준·建準)를 조직하고 재빨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영일군에서도 건준지부가 조직되고 이어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해 8월 21일 경 현재의 중앙 아트홀(육거리 전 시민회관) 자리 뒤편의 일본신사(神社) 동본원사(東本願社)에 영일군 건준지부를 설치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부서를 정했다.

- 명 칭 : 영일군건국준비위원회
- 위 원 장 : 정학선(鄭學先)
- 부위원장 : 이재우(李載雨), 이성룡(李成龍)
- 농민부장 : 이상갑(李相甲)

그밖에 노동부·총무부·재정부·부녀부 등의 부서가 있었으나 간부 인선은 미상이다. 간부의 명단은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영일군 건준은 우익계 인사를 포함한 좌우 연합조직이었으며 건준이 해소될 때까지 좌우간의 심각한 대립이나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간부 인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일군 건준은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을 지속해 온 좌익계 인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위원장인 정학선은 1927년에 신간회 영일군지부에서 민족통일운동전선에 참여하였고, 1928년에는 이재우 이상갑과 함께 고려공산청년회 포항야체이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부위원장 이재우는 영일청년연맹과 신간회 지부조직에서, 농민부장 이상갑은 1928년에 결성된 영일청년동맹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건준의 핵심간부들은 광복 전 민족운동 내지는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해 온 사람들이었다.

1945년 9월경에는 포항특별치안대가 김판석(대장)·박동근·김준규·김진일 등에 의하여 포항소방서(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조직되어 포항의 일본군을 불러 모아 무장을 해제토록 하였다. 이때 일본군의 총기가 거의 좌익청년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 치안대는 1945년 10월 3일 포항에 상륙한 미군의 명에 따라 곧 해체되었다.

1945년 11월 16일에는 시내 덕산동 구 연초조합 자리에서 강인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항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민주적 국가건설과 일본제국주의 및 모든 반동적 잔재 청산’을 목표로 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국어교육, 체육활동, 회보발간 등에 주력하였다. 한편 부녀동맹에는 정영향(이화여자전문대 출신)이 동창인 다른 두 여성과 함께 활약하였다.

서울에서 10월경 여운형(呂運亨)이 이끄는 건준과 박헌영(朴憲永)의 조선공산당이 합작하여 건준을 해체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포항지역에서도 건준의 해체에 이어 영일군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몇몇 우익 인사들이 이탈하였으나 정학선·이재우·이상갑 등 영일군 건준의 핵심 간부들이 그대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건준 조직을 계승하였다.

- 명 칭 : 영일군 인민위원회
- 위 원 장 : 정학선
- 부위원장 : 이재우(포항읍 인민위원회 위원장 겸직), 이상갑
- 총무부장 : 정자용(뒤에 남로당 군당위원장이 됨)
- 청하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 최원암(崔遠岩)
- 서울과 지방 연락담당 : 박순조

1946년 1월 12일 포항인민위원회는 읍면대회를 개최하여 700여 대의원이 모여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개선을 단행하여 인민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연일면 농민위원장에 서용락(徐龍洛)이 선출되었고, 김순종 등이 농민조합을 통해 인민위원회의 세력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영일군인민위원회는 가장 활동적인 정치단체가 되어 그 산하에 전평(全評, 전국노동자평의회)과 노동조합·농민조합·선원조합·어민조합·철도노동조합·청년동맹·부녀동맹 등의 조직을 두고, 그 밖의 단체들은 폭력으로 탄압하여 한때 공산당이 크게 대두하는 세상이 되었다. 면 단위에서는 흥해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치안대는 좌익계의 정인출과 우익계의 김판석(金判錫)이 지휘하는 좌우연합의 형태로 조직되어 치안을 담당하였다.

당시 영일군 인민위원장 정학선(鄭學先)은 영일군청을 점거하고 영일군수 행세를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재우는 포항읍장, 이상갑은 포항경찰서장 행세를 하였다. 이상갑은 불량배를 앞세워 치안대를 편성하고는 완장을 두르고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친일민족반역자 또는 반동분자로 몰아서 포항경찰서에 감금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에 승복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단결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인근 흥해면에서 흥해애국동지회가 조직되어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반공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자극된 포항읍에서는 이일우(李一雨)·박동주(朴東柱)·한봉문(韓奉文)·이화일(李化日)·김동덕(金東德)·김두하(金斗河)·최원수(崔元壽)·박일천(朴一天) 등이 1946년 2월경에 영일애국동지회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부를 결성하여 이일우(초대회장)·이화일(2대회장)·최원수(3대회장) 등이 이끌어 나갔다. 이어 조선민족청년단(약칭 族靑, 단장 이범석)지부가 1946년 10월에 결성되어 농민운동가인 백일혁(지부장)과 배한동·김준규 등이 활동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산계열의 폭력적 방해에 부딪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그 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전해지자 포항에서는 좌·우익이 합동하여 포항군장에서 5백여 군중을 모은 가운데 신탁통치반대 영일군민대회를 열어 결의문을 선포하며 시가행진을 벌이자 전 시민이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3일 후에 영일군인민위원회가 주관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일군민대회를 다시 열고 신탁통치를 지지하였으므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았다.

영일군인민위원회가 이처럼 불신의 궁지에 몰려있을 때에 앞서 영일군 애국동지회를 조직하였던 청년들이 중심이 된 50여명(崔二鳳·姜疇錫·金永守·김성도·오종근·박일천·정상택 등)이 현 신한은행 포항지점(전 조흥은행 포항지점) 안의 서편 자리에 모여서 포항청년회(회장 김판석)를 조직하여 공산당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2대 강주석 회장 활동시기에 포항청년회가 좌익청년들의 습격을 받아 사무실의 전 기물을 파손당한 일도 있었다.

이 포항청년회가 뒤에 포항광복청년회특별단부 및 대동청년단으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대한국민회영일군지부·대한노총영일군연맹·경상북도해상연맹 등이 조직되어 공산당 계열인 전평 산하의 12개 각 노동조합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좌·우 간에 본격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뒤 대구에서 1946년에 이른바 ‘10.1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가 포항에도 밀려와 발산지서·송라지서·기계지서·죽장지서 등이 공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각 지서의 무기를 탈취한 그들이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군내 각 읍면의 우익단체 청년들이 지서를 점령한 공비들을 축출하고 지서를 사수하며 민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치안유지 활동에 나섰다.

정부수립까지 당시 군정 경찰은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전 시내가 낮에는 데모로, 밤에는 좌우충돌로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때마침 국대안(國大案, 국립대학안, 여러 공립대학을 국립 서울대학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으로 주로 좌익이 반대) 반대의 학원 소요까지 겹쳤기 때문에 전국에서 좌익학생들의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1947년 2월 포항시내에서 좌우 청년들의 유혈충돌이 일어나 좌익청년 한차선이 희생되었고, 우익청년 김관석·이상현·김양호·박이만 등 14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광복 후 포항지역(포항읍을 포함한 영일군 지역)에서 공산당의 테러에 희생된 반공청년학생들은 이상현(李相鉉, 대동청년단 간부, 1947년 11월 옥사), 김진영(金鎭泳, 포항학련, 포항중학생, 피살) 등 130명에 이른다. 당시의 치열한 알력·투쟁 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희생은 민주국가 수호에 이바지한바 크다. 청년단체의 활동에는 과격한 면도 있었고 일부의 과오도 없지 않았지만 공권력이 확보되지 못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공산당의 테러활동과 무력투쟁에 맞섰던 당시의 사정에 따른 불가피성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공투쟁에서 학생단체의 활약도 매우 컸다. 학원가에서 좌익학생들의 난동이 격심해지자 우익계 학생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946년 7월 31일 서울에서 전국학생총연맹(全國學生總聯盟, 약칭 학련)이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도 1946년 3월 6일 전국학련포항지부(현재의 육거리 삼성전자 사옥 자리)를 조직하였다. 초대 위원장에 김석만(金石萬, 포항중), 제2대 위원장에 김경규(金慶奎, 포항중), 제3대 위원장에 이상훈(李相勳, 포항중), 제4대 위원장에 장동식(張東植, 동지중) 등이 선출되어 좌익학생들의 준동을 막아내는 한편 공비토벌에도 대한청년단, 향토방위대원들과의 합동작전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 선거에서도 공산계열이 투표함을 탈취·소각하는 등의 선거방해공작을 전개하자 우익 청년·학생들은 이를 막는데 공헌하였다. 정부수립 후에는 군경을 도와서 공비소탕과 치안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광복 후부터 6.25전쟁 전후까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전분투하다가 민주초석으로 산화된 당시 영일군내 출신 130명의 애국충혼과 순국의 얼을 영세에 기리고자 1963년 11월 18일 덕수동 수도산에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비(反共殉國靑年同志慰靈碑)를 건립하였다.

2. 공비의 만행

공산주의자들은 그 활동이 불법화되자 지하로 숨어들어 빨치산으로 변신하면서 곳곳에서 관공서를 습격하고 살인·방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당국에 협조하는 우익계 인사나 공무원·군인·경찰 가족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사례는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것이나 몇몇 사건을 살펴보겠다.

1) 딱발골 만행

1948년 4월 10일 죽장면 매현리(속칭 딱발골)에 7~8명의 공비가 침투하자 대한청년단의 단장 정태학과 구원식 등의 단원들은 맨손과 죽창으로 육박전을 벌이며 무장 공비에게 대항하였으나 감당하지 못하고 그 둘이 희생되었다. 대한청년단 죽장면 훈련부장으로 청년운동을 주도하던 박복동은 동년 10월 20일 조부의 기일에 귀가했다가 공비들에게 납치되어 마을 뒤 구암산에서 총살되었다.

2) 지경리 만행

1949년 11월 6일 밤 10시경 마을을 경비하던 중 대한청년단 지경리 단장 김춘술과 단원 10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10여명의 괴한들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청년단원들을 항거 불능케 하고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로 도망갔다.

한편 갈치잡이를 갔던 지경리 주민 정석이와 우학산은 공비들의 총칼위협에 못 이겨 괴선박에 실린 각종 무기를 영덕군 남정면 고래불까지 운반하고 돌아와 마을을 경비하던 김춘술과 상의하여 영덕경찰서 남정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단장 김춘술 외 3명은 전마선으로 포항경찰서 송라지서에 각각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당국에서는 공비토벌작전을 펴 공비 30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하였으며, 99식 소총 300정, 체코식 경기관총 3정, 실탄 3만발, 수류탄 300개, 대검 350자루 등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앙심을 품은 공비들은 1950년 2월 4일 밤 8시 40분경 지경리 마을을 습격하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여 이 마을 80호 중 52호 61동이 불타고 사망 34명, 부상 65명 등 99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제4절 6.25전쟁과 포항지역의 전란

1. 6.25전쟁

광복이후 미군이 진주한 38선 이남에서는 UN의 지원을 받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출범하였다. 이와는 달리 소련군이 진주한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세웠다.

1946년 2월에 이른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더니 1947년 2월에는 본격적 통치체제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들은 미·소 양군을 동시에 철수시켜 군사력으로 전국을 통일하고자 1948년에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을 거절하고 기만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였으며, 동시에 남한의 공산계열자를 조종하여 방화·학살·과괴 활동으로 남한의 정치와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다.

1948년 9월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하고 소련 및 중공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며 군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6.25남침 전에 이미 보병 10개 사단, 전차 1개 사단, 비행대 1개 사단을 확보하였다.

남한의 정국은 정가의 파벌대립으로 불안하였고, 각처에 확산된 좌익의 준동과 게릴라의 파괴공작으로 치안확보에 국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었다. 각처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폭동은 산업진흥을 저해하고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적인 북진통일을 부르짖었으나 국군의 병력은 8개 사단에 지나지 않았다. 군비는 더욱 빈약하여 육군은 1대의 전차도 없었고, 공군은 전투기 한 대 없이 20여대의 연습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1949년에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한반도의 무력적화를 기도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북한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였고, 김일성은 그의 지령에 따라 남침을 준비했다. 더욱이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방위선 밖에 있다.”고 천명하자 그들이 무력으로 남침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에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자 병력과 화력이 크게 모자라고 아무런 대비가 없던 국군은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8월 초에는 대구 근교의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은 즉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원조하여 침략자를 축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되어 미국을 위시한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필리핀·터키 등 10여개 국가의 군대가 참전하였다.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했다. 이어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여 북진을 계속하였다. 10월에 동해안으로는 청진까지, 중부에서는 초산 및 혜산진의 압록강까지, 서부에서는 선천까지 진격하여 국토통일을 눈앞에 두었다. 이때에 중공군이 개입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은 한때 한강 이남까지 후퇴하기도 하였으나 곧 반격하여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었다. 이후 정전협정이 진행되면서 전선은 점차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승만대통령이 2만 5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한 가운데서도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과 북한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어 3년 1개월여에 걸쳤던 치열한 전투는 일단 끝났다.

6.25전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전쟁 중의 하나로 그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민족통일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남북 간에 적대감정이 고조되고 분단의 비극이 심화되었다.

2. 포항지역 전투

1) 전투 전의 개황

(1) 적군의 상황

북한공산군은 1950년 7월 20일경 김일성이 수안보에서 “8월 15일 내에 부산을 점령하라”는 독전명령을 내리자 혈안이 되었다. 서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7월말에는 영덕·안동·함창·상주·김천·진주를 연하는 선을 침공하여 낙동강 외선에서 포위망을 형성했다. 적 제12사단이 8월 1일 안동에 침입하고 있을 무렵에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던 적 제5사단은 영덕 남쪽의 강구 선에서 아군 제3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전진이 교착되어 있었다. 제5사단의 진출속도가 늦었던 까닭은 아군 제3사단의 지연작전이 주요한 데다 미 공군의 근접지원과 미 해군의 함포사격 때문에 저들이 주로 야간에만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적 제2군단장은 제5사단의 남진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제12사단으로 하여금 7월 말 안으로 안동과 포항을 점령하라고 독전하였다. 그는 제12사단이 안동에서 청송·입암을 거쳐 한국군의 방비가 비교적 미약한 산악지대를 통하여 포항을 우회 공격하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아군 제3사단의 후방을 차단케 함으로써 이를 고립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적 제12사단은 8월 1일 안동을 수중에 넣었지만 그간의 손실로 말미암아 허약체가 되어 있었으나 이른바 안동사단이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강과 포항을 목표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적 제1군단장은 제12사단보다 먼저 제8사단으로 하여금 포항선 외곽에 진출시키려고 꾀하였으나 제8사단이 8월 7일 의성부근에서 아군 제8사단 21연대 제1대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1개 대대가 전멸 당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700여명의 인적 손실을 입었고 이 사단에 배속된 전차 5대와 자주포 다수가 대전차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기갑부대도 미 전폭기의 공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막심한 타격을 입자 적 제2군단장은 제8사단에게 최초의 목표를 변경시켜 의흥(군위군 의흥면)·신녕(영천시 신녕면)지구로 가게하고 제12사단으로써 안강·포항지역으로 진출토록 했다.

적 제5사단은 8월 9일 강구를 점령하였지만 그 이상의 남진은 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반하여 적 제12사단은 8월 9일 입암(죽장면)에 진출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선봉부대인 1개 연대병력이 흥해 서쪽 6km지점에 침입하였다. 이와 함께 유격대인 적 제766부대는 영덕에서 안강지구를 향해 서남쪽으로 진출하였다.

8월 11일 미명에 적 제12사단의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적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이 포항시가에 침입함으로써 동부전선에는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었다.

(2) 아군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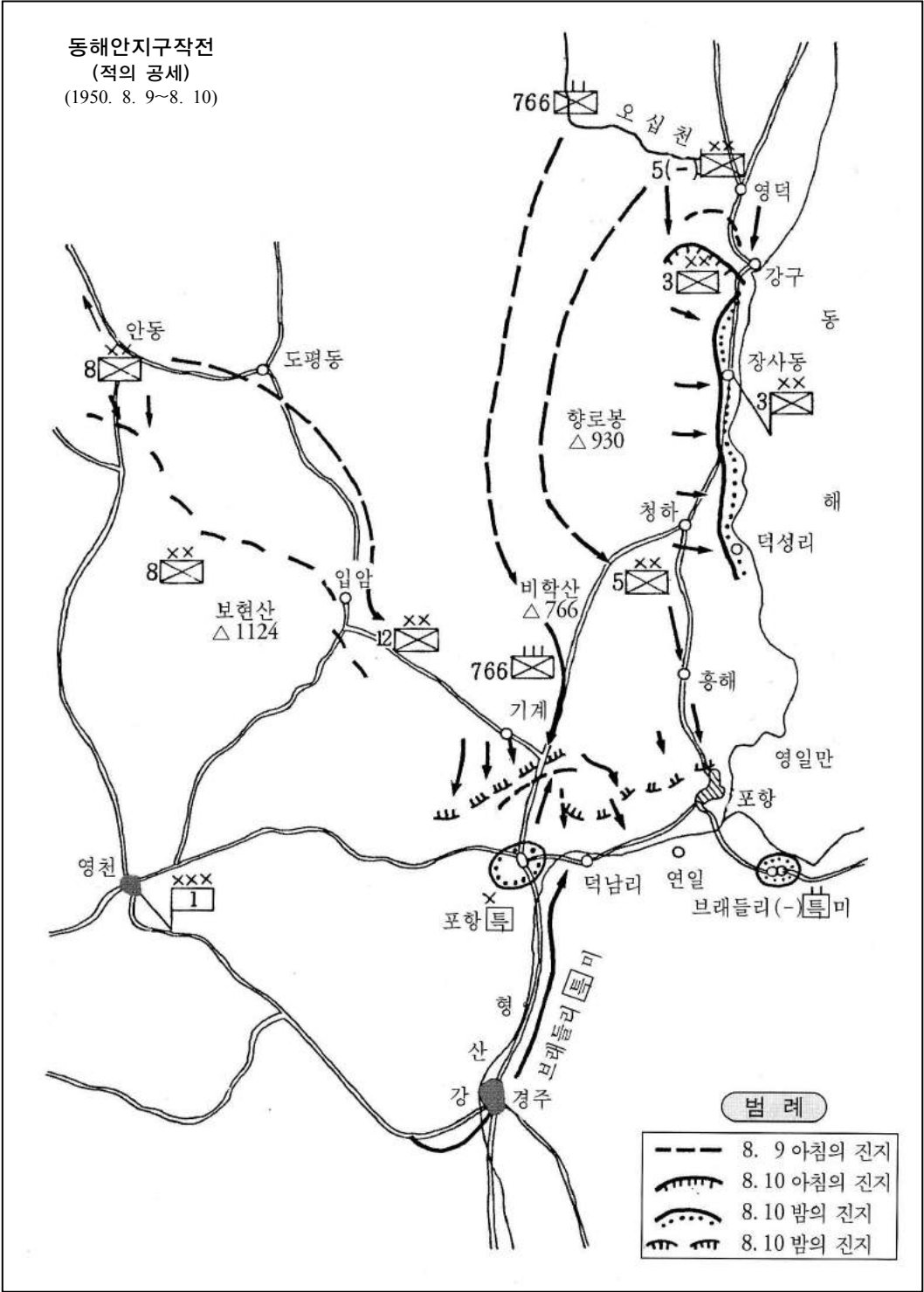
동해안에서 적의 남하를 힘껏 막아오던 아군 제3사단은 영덕지역에서 남쪽 10km지점인 장사동(영덕군 남정면) 일대로 전개하여 적 제5사단과 대치 중에 있었는데 8월 11일 새벽 4시경에 적의 일부병력이 포항에 침입하면서 후방이 차단되었으며 또한 측면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포항을 상실하면 포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천(영일)비행장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오천비행장은 F-51전폭기의 출격기지이며 지상군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은 동해지구에서 육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항구시설을 갖춘 교통의 요로로 이 지역을 점령당하면 적군이 영천·대구·경주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군의 포항지구 방어는 그만큼 중요했다. 이에 미 제8군은 브래드리(Bradley)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급격히 이 방면에 출동시켜 비행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다.

육군본부는 8월 10일부로 포항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정일 대령)를 설치하고 제3사단과 협조 하에 안강·포항부근에 침입한 적을 포착하여 섬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민(閔)부대와 수도사단 일부 병력을 포항지구에 출동시켜 미 브래드리부대와 협조하여 이 지구에 침입한 적을 서북쪽으로 격퇴하려고 하였다.

장사동(長沙洞)에서 고립상태에 빠져있던 아군 제3사단은 해상으로 철수하여 구룡포에 상륙한 다음 수도사단 일부 병력과 협조하여 포항지구에 침입한 적을 북쪽으로 추방하려고 새로운 방어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동해안지구작전
(적의 공세)
(1950. 8. 9~8. 10)



2) 포항 방어전(8월 10~11일)과 학도의용군 전투

(1) 포항여중 전투

1950년 8월 10일 당시 포항에는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포항여자중학교에 위치하여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해군경비부의 본부요원 300여명과 공군포항지부대 1개 중대 및 경찰과 청년방위대 약 3,000여명의 병력이 있었다. 또한 제3사단 후방지휘소에는 수도사단에 종군한 바 있던 학도의용군 71명의 비무장 병력이 의성(義城)지구로부터 8월 9일 저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안동전투 당시 수도사단에는 김석원(金錫源) 준장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수백 명의 학도의용군이 있었는데, 김석원 준장이 8월 7일부로 제3사단으로 전임하자 이들은 김석원 장군의 휘하에서 종군하기를 희망하였다. 수도사단에서는 이들 학도의용군의 무장을 거두고 임의대로 행동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므로 그들 중 희망자 71명은 8일 밤 12시경 스스로 선출한 책임자 김용섭(金龍燮)이 지휘하여 포항으로 김석원 장군을 찾아왔다. 포항역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군대가 주둔해 있는 포항여자중학교를 찾아가니 김 장군은 아직 대구에서 제3사단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군을 기다리며 인사처에 명단을 제출하고 무기와 숙소를 교섭하고 있었다.

10일 밤 열 시경 작전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용섭이 달려가니 작전과장은 지도를 가리키며 현황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학도의용군을 무장하기 위하여 미 해병대에서 무기를 빌려오기로 하였으니 지금부터 30분 안에 사단본부 앞으로 집합하라는 것이었다. 학도병은 1개 중대 2개 소대로 재편성하여 중대장에 김용섭, 제1소대장에 유명욱(劉明郁), 제2소대장에 김일호(金壹鎬), 중대연락병에 김만규를 선출하였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의 작전처에서는 트럭으로 영일비행장의 미 해병대에 가서 M1소총 68정, 수류탄 3발, 탄환 2만 여발을 싣고 와서 지급하여 주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학교 복도에 늘어 앉아 총을 분해하여 수입(소제)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다.

8월 11일 새벽 4시경 후방지휘소 뒷산에서 6발의 예광신호탄이 올라 터지는 것을 계기로 일제히 울려나온 파발총성은 포항시내의 군경과 시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시민들은 잠결에 놀라 집을 뛰쳐나와 우왕좌왕하며 피난길을 서둘렀다.

잠을 설친 학도의용군들이 막 눈을 비비고 일어나 연병장으로 집합했을 때 작전처 장교는 “학도대는 전투준비! 사단 전면을 방어한다. 학교정문 올라리 좌우의 제방에 산개(散開)전투개시”라는 작전명령을 내렸다. 우선 학도병 2개 소대를 지휘소 외곽에 배치시켜 적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이 때 포항시에는 아군의 주력부대는 물론 해군과 공군의 주둔병도 있었는데 전세가 워낙 불리한 탓인지 포항시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탓인지 저항이 없었

고, 적은 마침내 사단본부를 향해서 침투해왔다.

중대장 김용섭이 전투에 나와서 “우리 학도대는 사단본부를 향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방 제방에 위치한다. 제1소대는 교문을 중심으로 좌측 100야드 선에, 제2소대는 그와 반대로 우측 100야드 선에 대진한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 소대장은 명령위치에 6시 20분까지 완전 산개하여 이동상황을 보고한다. 즉시 행동개시!”라고 외쳤다.

적의 탐색대는 이쪽을 향해서 거침없이 진출해 왔다. “적이 나타났다. 명령 없이는 절대로 사격을 말라.”는 전령을 각 소대로 보내고 전후방에 척후를 내보냈다. 적 탐색대의 이동상황을 보고 있으니 앞산에 붉은 깃발이 우뚝 솟아오르고, 시내의 총소리가 콩 볶는 듯하였다.

시내의 소총소리가 몇자 도로 위로 적병이 진격해 왔다. 동시에 적은 중화기로 포격을 개시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발의 포탄이 사단본부에 날아와서 폭발하더니 약 5분 동안 포격은 없었다. 그 사이에 약 1개 중대의 적이 서서히 총 한 번 쏘지 않고 거의 가시적 지점까지 진출해 왔다.

학도의용군은 날이 새면서 시야가 분명해진 6시 45분경 학교 정문 앞으로 적군의 행렬이 다가와 약 5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학도의용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약 200명이 쓰러졌다. 잠시 뒤 적은 뒤편 고지의 지원을 받아 중화기의 집중공격을 시작하였다. 철로를 사이에 두고 사격하며 학도병에게 감언이설로 항복을 종용하였으나 국가 정신이 투철했던 그들은 일언지하에 물리치고 실탄이 다할 때까지 응전하였다.

북한군은 장갑차 5대를 앞세우고 다시 전진해 왔다. 그 중 2대가 학교정문으로 돌입하면서 기관포를 난사하였으며 적병들은 10m 전방까지 육박하여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다가왔다. 맨주먹의 학도병들은 적의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는 혈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근접전에서 50~60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아깝게도 김춘식(金春植) 외 57명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 때 사단본부 건물인 학교 교사는 전부가 소진되었다. 결국 바깥 벽체만이 포연 속에 모양 없이 솟아났을 뿐이었다.

전투는 12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후방지휘소 본부요원들은 철수한 뒤였고 실탄이 떨어져 더 이상 싸우지 못하자 현지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는 적이 침입하자 전투 병력이 없어 우선 군수품을 철수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병참부에서는 군수품을 대부분 민간선박에 싣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없이 철수하였으며, 병기부는 보유하고 있던 많은 노획무기를 일부는 땅에 파묻고 나머지는 휴대하여 구룡포로 후퇴하였다.

후방지휘소 감찰참모인 손창규(孫昌奎) 소령은 형산교에서 철수하여 오는 병력을 수

습하여 전투중대를 편성하고 제방에다 배치하여 적에 대비하였다.

해군포항경비부(사령관, 南相徽 중령)에서는 적의 침입이 있자 즉각 경비부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잔류병을 동원하여 철수준비를 서둘렀다.

포항을 점령하고 시내에 침입한 적은 미 해군의 함포사격과 공군의 폭격을 피하여 시가지 뒤편의 고지로 물러나고 정찰대만이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다.

11일 날이 밝자 영일(오천)비행장으로부터 F49기가 몇 대씩 편대를 지어 포항시내로 날아와 폭격과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폭탄은 ‘쇄’하는 날카롭고 섬뜩한 비행음을 내며 시내 곳곳에 떨어지고,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여기저기 솟아올랐다.

간간히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아침의 동빈동 부두에서는 피난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서로 먼저 배를 타려고 매달리고 물에 떨어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미 해병비행대와 북한군이 접전한 포항 중심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이로써 거의 무방비 상태의 포항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2) 학도의용군 전투의 의의

포항지구 학도의용군 전투는 6.25전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민족정기의 발현으로 그들이 남긴 큰 발자취는 자신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격전지 포항의 영예이기도 하다. 1974년 김석원 장군의 ‘학도병회고’ 일부 문장을 소개한다.

“의로운 정신은 생사를 초월했고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천하무적의 장군이 아니었던가. 학도는 그 시대의 양심이며 미래를 위한 꽃 봉우리인 것, 젊음이 아깝고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가상하다. 그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의로운 사람은 죽어서 역조창생을 살게 하노니 그들의 짧은 생애는 소아적이 아니고 얼마나 대국적이었는가. …(중략)… 어제도 오늘도 그날의 젊은 학도병들은 이 민족 가슴마다 속속히 살아 있을 것이니 누가 그들을 모른다 할까. 젊음은 애석하나 참됨은 가상하도다. 젊은 학도병들아!”

임전무퇴(臨戰無退)의 화랑정신으로 적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학도의용군의 그 숭고한 충절을 기려 ‘戰歿學徒忠魂塔’(포항시 용흥동산 103의 1번지)과 ‘學徒義勇軍6.25戰跡碑’(현 포항여고 앞)가 세워졌다.

(3) 양덕동() 학도의용군 전투

국군 제3사단이 공산군 9월 공세를 맞이하였을 때 포항북쪽 4km지점의 양덕동 무당곡(巫堂谷)에서 있었던 전몰학도의용군의 전적을 기록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코자 한다.

당시는 전세가 워낙 위급하다보니 군에서는 신병을 훈련시킬 시간여유가 없어 겨우 소총사격만을 가르치고 전선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때 흥해지구 전투에 참가한 어느 부대 한 소대에서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신병 32명을 전입 받았다. 소대장과 분대장 및 공용화기 사수를 제외하고는 소대원 전원이 학도의용군이었다.

학도의용군을 인수받은 소대장은 우국충정에 불타는 그들과 같이 싸우게 되어 가슴 뿌듯하였다. 학도의용군은 소대장의 작전지시에 따라 호를 파서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

9월 2일 오후 3시 30분 적은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이 소대 진지로부터 150m 전방까지 접근하자 사격명령이 하달되고 전 소대원은 적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5분쯤 지나자 멈춰버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소대장이 진지를 확인하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여기저기서 “소대장님, 소총이 고장 났습니다.”고 한다. M1소총 재장전 방법을 몰라서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소대장님! 소대장님!” 여기저기에서 외치는 소리에 소대장은 전투 지휘도 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장전 방법을 가르쳐주다 적탄에 맞고 말았다. 소대장이 전사하자 소대원은 전의를 잃고 적의 공격은 계속되어 마침내 진지를 내주고 철수하였다. 이때 아군은 포항을 잃고 포항의 9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현지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까만 교복을 입은 학도의용군 약 100여명이 전사하여 그곳 골짜기를 새까맣게 물들여 숙연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한다. 그 전사자의 명단을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4) 포항출신 학도의용군

포항출신의 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형산강·안강·기계전투 등에서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충절의 포항정신을 발휘하여 포항인의 기개를 드높였다.

밝혀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孔南國(동지중)	權寧德(동지중)	金慶圭(포항중)	金斗錫(포항중)
金斗石(수산중)	金斗洙(城北中)	金斗永(수산중)	金聲穆(포항중)
金億萬(수산중)	金瑩圭(수산중)	金在坤(포항중)	金在源(대구중)
金在衡(포항중)	金廷善(포항중)	金廷出(포항중)	金貞翰(포항중)
金鍾守(동지중)	金煥坤(수산중)	金後龍(포항중)	南永祜(順天中)
羅永文(수산중)	朴炳昊(흥해중)	朴昌和(포항중)	白石基(포항중)
白雲燮(포항중)	徐相珏(동지중)	徐永喆(포항중)	孫大翼(포항중)
孫錫鎭(동지중)	孫鍾鎬(동지중)	申東俊(포항중)	申成喆(포항중)
양세전(동지중)	玉 顯(포항중)	元大淵(포항중)	尹天壽(동지중)
李東雨(포항중)	李白秀(계성중)	李相發(경북대)	李相勳(포항중)

李泳奎(포항중)	李鍾學(동지중)	李俊熙(동지중)	張基鳳(포항중)
張東植(동지중)	鄭雄聲(포항중)	鄭海永(포항중)	趙永煥(惠山中)
崔基榮(포항중)	崔銅柱(포항중)	崔相龍(동지중)	崔聖默(포항중)
崔聖浩(동지중)	崔潤勇(포항중)	崔俊哲(동지중)	崔仲吉(포항중)
片時道(포항중)	河自振(동지중)	韓先鳳(포항중)	韓運煥(동지중)
洪文一(포항중)			

3) 제3사단의 독석리() 철수작전(8월 10일~17일)

8월 10일 적 제5사단의 일부병력이 흥해를 차단함으로써 장사동(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부근에 위치했던 아군 제3사단은 적의 포위망에 들게 되었다.

미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제3사단의 미 고문관 에메릿지(Emmerich)중령을 통해 제3사단은 장사동을 사수하고 포항으로 남침하는 적의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에 제3사단은 강구(江口) 남단에서 장사동 남쪽 11km지점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선을 따라서 교두보진지를 구축하여 적과 맞서게 되었다.

11일 아침 포항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제3사단장(金錫源 준장)은 1개 연대와 2개의 75미리 포대로 하여금 포항에 공격을 가할 것을 결심하고 그 작전을 준비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지를 사수하라는 워커 중장의 명령이 있어 결국 사단장은 장사동에서 그대로 방어전을 계속키로 하였다. 워커중장은 15일 드디어 제3사단의 해상철수를 명령하였다. 경비행기가 다시 오게 되어 철수지점을 통보했더니 “오늘밤 21:00에 LST(상륙용 舟艇,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한 미국의 전차상륙함) 4척이 해안선에 도착하니 필요한 준비를 갖추라.”는 회답을 하고 돌아갔다.

17일 06:00에 부상자 125명을 포함하여 사단병력 9,000여명, 경찰대 1,200명, 지방 공무원과 노무자 및 피난민 등 1,000여명이 대기 중인 LST에 승선 완료하였다.

철수작전 동안 미 함정들은 함포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하였으며, LST가 해안을 떠날 무렵에 함재기(艦載機)가 기총소사를 계속 가하자 적은 감히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마지막 LST가 07:00에 독석리(송라면 방석리 독석마을) 해변을 떠남으로써 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4) 민(閔)부대의 포항 탈환전(8월 15일~20일)

육군본부는 8월 15일에 군 예비대로 확보 중이던 민부대를 영천(永川)에서 포항방면으로 전진케 하여 포항을 탈환하라고 명하였다. 민부대는 경주 화산리(花山里)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그 제2대대는 터널고지[弟山]가 있는 형산강 남쪽 256고지(형산맥 남안의 兄山)에, 제1대대는 대각동(大覺洞, 대송면)에 이르는 지대에 배치되었다.

17일 제2대대장 이창범(李昌範) 대위는 정찰대를 침투시켜 포항시가지에는 적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8일 04:00에 형산강을 건너 포항으로 전진하였다. 민기식(閔機植) 부대장은 제2대대장의 보고를 받고 제1대대는 포항 시가를 향해 돌입하고, 제2대대는 시가의 능선지대에 진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소수의 적을 무찌르면서 포항을 탈환하였다. 민부대는 북쪽으로 적을 추격하여 천마산(天馬山, 한동대 맞은편 산)을 목표로 전진을 계속하다가 날이 저물어 이인동(里仁洞, 흥해읍, 당시 달전면)과 동쪽의 두호동(斗湖洞)을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는 부근 능선일대에 각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 부대가 공격하고 있는 동안 미 전차소대가 포항 북쪽 고지에서 지원전을 계속하였고, 민부대의 좌측에서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제26연대가 기계(紀溪) 부근의 고지를 공격 진출 중이었다.

19일 민부대는 배치선에서 적 정찰대와 경미한 교전을 계속하였으며, 221고지를 공격 중이던 제26연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그날 22:00 민부대와 제3사단의 임무교대를 명하였다. 제3사단은 도구동(都邱洞, 동해면소재지)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포항에 진출한 다음 사단사령부를 포항에 두고 제23연대가 민부대 배치선에서 진지를 인수하였고 제22연대는 예비대로서 포항에 잔류했다.

5) 제3사단의 포항지구 격전(8월 19일~9월 5일)

민부대와 진지를 교대한 제3사단은 20일 새벽에 제23연대 제1대대(金尤榮소령)와 제3대대(朴鍾秉대위)가 도구동(동해면)에서 행동하기 시작하여 북쪽 냉천동(冷泉洞, 흥해읍 성곡리)와 장흥동(長興洞, 현 포항시 장성동의 자연부락)을 잇는 선에 진출하였다. 제26연대는 221고지를 확보하고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제23연대는 21일과 22일에 이어 천마산(天馬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천마산 96고지 남쪽 산의 기슭에는 현재 한동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6.25전시에는 대단한 격전지로서 피아간(彼我間, 학도의용군 포함)에 많은 희생으로 사수하려 한 고지였다.

23일 수세에 몰린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천마산 고지에 공격을 가해와 격전 끝에 24:00에 제1대대는 물러났다. 24일 제23연대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천마산을 탈환하려고 종일토록 적과 격전을 전개하였다.

전세가 아군에 불리해지자 25일에는 제22연대 제1대대가 12명으로 편성한 특공대를 조직하고 24일 적이 점령한 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여 드디어 적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특공대원 8명이 전사하였다.

적은 수일간에 걸쳐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27일 새벽에 아군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공격해왔다. 천곡사(泉谷寺, 현 흥해읍 학천리) 좌측 산악지대를 담당하던 제26연대 방어선이 적에게 돌파 당하자, 제22연대는 배후로 진출한 적의 압력을 받아 128고지 연

대지휘소 선으로 이동하였고, 제23연대도 천마산을 다시 확보 못한 채 두호동(斗湖洞) 북쪽 1km선으로 이동하여 새 진지를 구축하였다.

27, 28일에 제22·23연대와 제3사단에 배속된 제8연대 제1대대는 배치선과 자명동(自明洞, 연일읍 자명리, 당시 달전면) 북쪽 고지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 하였으나, 낙관할 수 없게 되자 제3사단장은 효자동(孝子洞)에 집결중인 제26연대 1개 대대를 학천동 우측 능선에 진출시켜 우측의 제8연대 제1대대와 협동토록 하였다.

29일 제1군단은 09:00를 기하여 미 공군의 근접지원과 포병, 전차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정면의 적을 강타하였다. 적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계속 저항하였다.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미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은 적의 보급소이며 집결지인 흥해 일대에 5인치 포탄 1,500발을 발사하여 쑥발을 만드는 등 큰 타격을 입혔다. 31일에는 미 항공모함 시시리(Sicily)호에서 함재기가 38회나 출격하여 적진을 강타하였다.

제3사단은 9월 1일 미명을 기하여 사단 정면에서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여, 23연대는 장흥동(장성동 부락)과 충곡동(忠谷洞, 흥해읍 성곡3리)의 99고지를 향해 전진하였으며, 제22연대는 128고지를 공격하고, 제1연대는 295고지를 점령한 다음 천곡사(泉谷寺)로 계속 전진해 나갔다. 제10연대는 제1연대 우측에서 제1연대와 더불어 전진하였으며, 제8연대 제1대대는 자명동과 달전동(達田洞, 연일읍, 당시 달전면)에 침투한 적을 공격 중이었다. 이날 제3사단장이 경질되어 김석원(金錫源) 준장 후임으로 이종찬(李鍾贊) 대령이 부임하였다. 참모장에는 정래혁(丁來赫) 중령이 기용되었다.

적은 2일 03:00에 돌연히 전면공세로 나와 제23연대는 99고지를 빼앗기고, 제22연대도 방어선이 무너졌다.

미 제21연대 제3대대는 제23연대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K중대를 출동시켰는데 이 중대는 1개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포항에서 흥해로 가는 계곡을 따라 전진하다가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전차 2대가 파괴되는 등 손실이 컸다.

중앙 배치부대인 제22연대 정면의 우측방 105고지(소티재)는 3일 03:00에 적의 공격으로 인해 적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이 고지는 적이 포항으로 진입하는 어귀의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제22연대 제1대대는 특공대 1개 소대를 편성하여 105고지를 탈환하였다가 야간에 적의 역습을 받아 다시 빼앗기고 포항시가의 뒤 능선지대로 진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날 제10연대 제2대대가 145고지에서 남하하는 적을 막아내고 있었고 제1·3대대는 학전동(鶴田洞, 연일읍, 당시 달전면) 우측 능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는 거의 3km에 달한 간격이 생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4일 우측의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여전히 진지를 확보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야간에 이르러 수도사단의 방어선이 또 다시 돌파 당했으므로 제3사단은 형산강 이북에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다.

적 제5사단은 인접사단과 호응하여 5일에 제3사단 방어진지에 일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11:00에 5대의 자주포를 선두로 제22연대 정면에 공격해 왔다. 2:30에 사단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단장은 드디어 철수명령을 내려 형산강 이남으로 건너와서 제10연대(좌측)와 제23연대(우측)로 하여금 형산강 방어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제22연대도 철수하여 제23연대 후방지역에 집결하게 되고, 사단 지휘소는 오전비행장 서남쪽 3km지점인 장흥동(長興洞, 대송면)에 설치하였다.

6) 형산강 방어전(9월 6일~13일)

제3사단장은 9월 6일 제1군단으로부터 제10연대를 원대인 제8사단으로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7일 사단장은 제23연대로 하여금 제10연대의 지역을 담당시키고 제22연대를 연일에서 형산교(구 형산교, 최근에 가설된 신형산교 자리에 있었음. 1933년에 준공되었으며 길이 444m 폭 8.4m로 당시로는 매우 큰 규모였다. 6.25 때에 시내 쪽 3개 교각 사이의 2칸이 폭파되었으나 수복 후 즉시 보수되었다. 1998년 태풍 애니호 때에 72m가 유실되어 그 해 11월~12월에 철거하였음. 포항시 건설과의 자료에 의함)까지에 배치하였으며, 이날 제26연대의 1개 대대가 배속되어 형산교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일선에 배치하였다. 사단지휘소는 도구초등학교(동해면)에 설치하였다.

8일~10일 사이에 제3사단 제23연대와 제22연대는 적을 격퇴하여 침투한 적 병력을 형산강 북쪽으로 몰아내려 하였고, 제22연대는 대각동(대송면) 서쪽의 107고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11일에는 처치특수임무부대의 美 제19연대 제2대대가 격전 끝에 12일 12:00경 운제산(雲梯山, 대송면 산여리 481.4m)을 점령하였다.

7) 포항~흥해지구 반격전(9월 14일~22일)

포항~흥해지구 반격전은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작전계획에 따라 9월 13일 12:00에 시작되었다. 14일 현재 제26연대는 청림동 일대에 배치되고, 제22연대는 사정리(射亭里, 대송면 장동 자연부락) 부근에서 패적(敗敵)을 공격하였으며, 제23연대는 남성동(南城洞, 대송면)에서 생지동(生旨洞, 연일읍)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5일 제26연대는 용덕동(龍德洞, 오천읍)에 집결하여 3개 대대 편성을 마친 다음 괴동동(槐東洞, 대송면, 현 POSCO 본사부근)에 있는 적을 격퇴하였으며, 사단 공병대대는 일월동(日月洞, 동해면, 당시 오천면, 비행장에 인접)에 집결하여 제23연대 정면에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며, 포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포대씩 배속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제3사단장은 16일 일제 총 반격계획에 따라 예하 각 연대의 전투지경선을 설치하고 각 부대를 형산강 이남에 배치하였다. 이날 제26연대는 청림동, 제23연대는 남성동에 배치하고 형산강 대안(對岸)의 적과 대치하여 형산교 전방의 적진지에 대하여 맹

렬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23연대 정면의 적은 형산강 북안 제방 일대에 횡단 교통로를 구축하여 약 1~2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서 강력한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탄막으로 아군의 도하작전을 방해했고, 제방 후방고지 일대에는 약 1개 연대로 추산되는 적의 주력이 전선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때 포항 근해에는 전함 미주리호를 포함한 미 기동함대가 지상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을 수행하였다. 특히 미주리호는 16인치 함포로써 형산강 북쪽 제방에 연한 적진지를 강타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제3사단은 17일의 도하작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04:00를 기해 제23연대가 도하작전을 시작했다. 제23연대는 04:00에 은밀히 강을 건너는 중에 적의 집중사격으로 피아간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으나 전진을 계속하여 12:00경에 제1대대 제1·제3중대와 제3대대 제9중대가 도하에 성공하였으며, 18:00경에는 제3대대 제11중대도 도하하여 효자동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형산교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제26연대는 06:00부터 도하하기 시작하였으나 아군은 적의 완강한 저지로 손실만 내고 전진이 부진하자 1개 소대 병력의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특공대의 과반수가 적의 사격으로 장엄하게 전사한데 힘입어 드디어 교량 북안을 확보하였다. 이어 제2대대 병력이 18:00에 완전히 도하에 성공하여 북쪽 제방을 점령하였다. 제23연대는 19일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효자동 서방 고지에서 적과 육박전을 전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으며, 제22연대는 이날 미명에 형산강 도하를 완료하고 06:00에 효자동 동쪽에서 포항을 향해 진격하였다. 우측 부대인 제26연대는 송내동(松內洞, 당시는 대송면, 형산교 제방 밑에 길게 이어졌던 마을, POSCO 건설로 철거)을 기점으로 포항을 향해 진격 하였으며, 오후에 소규모 적의 저항을 무찌르고, 제22연대와 협조하여 포항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22연대가 9월 18일부터 반격전을 전개한 3일 만인 이날까지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다.

- 사 살 : 175명
- 폭 살: 200명
- 포 로 : 228명
- 노획품 : 다발총 27정, 수류탄 65개, 기병총 1정, 소총 68정, M1소총 30정,
직사포 2문, 대전차포 2문, BAR 1정, 체코식 경기관총 3정, 트럭 1대,
직사포탄 3트럭분, 각종 실탄 5트럭분

포항에서 물러난 적은 21일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제26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고, 제22연대는 적을 쫓아 22일 06:00에 흥해를 탈환하고

11:00에는 계속 진격하여 청하면 고현리(古縣里)선에 진출하였다. 제23연대는 달전동(연일읍)을 거쳐 적을 추격하여 전진하였다. 이날 제26연대는 전투지휘소를 포항의 학산동으로 이동하는 한편, 주력부대는 계속 북상하여 소동리(蘇東里, 청하면) 부근에 진출하였다.

8) 청하~울진 진격전(9. 23~9. 27)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26연대는 23일 05:30을 기하여 또 다시 공격전을 전개하여 해안선 일대에 출몰하는 적의 편의대(便衣隊)를 격파하면서 계속하여 북진하여 청하를 탈환한 뒤, 15:00에는 청하 북쪽 2km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제26연대의 후속부대로써 06:00에 출동하여 청하 서쪽고지 일대의 잔적(殘敵)을 격파하고 18:00 청하에 진입하였으며, 제 23연대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천곡사 일대의 적을 격파한 다음 계속 전진하여 09:00에는 입석(立石, 선돌, 신광면 만석리) 동쪽 286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6연대는 24일 06:00에 출동하여 동해안선을 따라 적 편의대를 격퇴하면서 계속 북상하여 17:00에는 강구(江口) 남쪽 4km지점인 남호동(南湖洞, 영덕군 남정면)에 진출하였다. 제22연대도 06:00에 청하에서 출동하여 제26연대의 후속부대로 북진하여 17:00에 장사동(영덕군 남정면)에 집결하였다.

제23연대는 286고지와 입석(立石) 일대의 적 제5사단의 수용부대로 보이는 완강한 부대를 격파한 다음, 흥해로 기동하여 흥해국민학교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9) 장사 상륙작전

6.25전쟁에서 아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양동작전의 하나가 1950년 9월 14일의 학도병에 의한 장사(영덕군 남정면) 상륙작전이었다.

1950년 8월 24일 대구를 중심으로 모집된 학도병 772명을 중심으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가 창설되었다. 대장은 이명흠 소령이었다. 그들은 간단한 훈련을 마친 뒤 9월 10일 장사동 상륙작전명령 제174호를 받아 700톤급 LST 문산호(선장 황재중)에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장사로 향했다.

9월 14일 상륙작전이 개시되자 적군은 부경리(남정면) 200고지, 부흥리(남정면) 125고지에서 문산호를 향하여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5중대 부관 박계담 소위가 ‘돌격’ 소리를 외치자 부대원들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어 장사 해안으로 상륙했다. 그들은 함포와 전폭기의 지원을 받으며 낮 12시경에는 고지를 장악했다. 밤이 되자 적은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다시 공격해왔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1주일을 버티던 학도병들은 문산호가 좌초되고 수많은 동료가 전사한 상황에서 20일 부산항으로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했다. 현지에는 상륙작전에서 산화한 학도병을 위하여 위령탑이 건립되었으며 1990년부터 매년 9월에 위령제와 추모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3. 기계·안강 부근 전투

1) 전투 전의 개황

(1) 적군의 상황

8월 3일에 적 제12사단은 청송을 출발하여 도평리(都坪里, 청송군 현동면)를 거쳐 입암리(立岩里, 죽장면)에 집결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유격부대인 적 제766부대는 향로봉·비학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타고 남하하여 기계·안강 부근에 출몰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해안의 적 제5사단의 남침에 호응하여 아군의 방어력이 미약한 기계·안강·경주 등을 점령한 다음 한 길로 부산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2) 아군의 상황

청송에서 적의 남하를 방어하고 있던 아군 수도사단의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8월 5일에 의성으로 철수하였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강구에서 적 제5사단과 교전 중에 있었다. 적의 대규모 병력이 기계·안강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육군본부에서는 즉각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중부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수도사단을 이 지구에 기동시켜 적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동해안에서 계속 남하를 시도하는 적 주력부대의 기도를 와해시켜 아군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 하였다.

2) 기계 방어전(8월 9일~12일)

적 제12사단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은 전차·장갑차·중포(重砲)등을 동원하여 청송·입암리(죽장면)를 거쳐 기계 북쪽에 나타나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새로 편성된 제25연대로 하여금 급히 이 지구에 출동시켜 기계·안강을 거쳐 경주지구로 남하하려는 적의 야욕을 와해시키려 하였다.

제25연대 제1대대는 9일 11:00 안강에 도착하여 안강 북쪽 노당리(老堂里, 경주시 안강읍) 445고지의 능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안강 북쪽 다산동(多山洞, 강동면)에 위치한 연대 관측소 북쪽 ‘대안골’ 고지대에는 기계 북쪽에서 적과 지연전을 벌

리면서 후퇴한 해군육전대 약 300명이 배치되었다.

제25연대는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던 중 16:00경에 수 미상의 적병이 제25연대 관측소를 기습해 와서 피아간에 격전이 전개되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445고지(노당리 뒷산) 하단으로 방어선을 정리하였다.

10일 제25연대장은 새로 도착한 제3대대(제11·12중대 빠짐)에게 445고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고, 제1대대 병력은 안강에 집결시켜 재편성을 마친 다음 안강 외곽에 배치시켰다.

이날 아침 육본명령으로 안강에 도착한 제17연대는 제3대대를 좌측에서 작전 중인 해군육전대와 협동하여 양동리(良洞里, 경주시 강동면) 동북 236고지(강동면 유금리와 연일을 달전리 접경) 남쪽을 확보케 하고, 제1대대를 양동리 북쪽 165고지(설창산, 안계저수지 서편)에 배치하여 안강을 측방에서 침투하려는 적에 대비토록 하였는데 이때 제17연대 제2대대는 예비대로 안강에 위치했다.

제25연대 제3대대가 점령하고 있던 445고지에서도 12일 18:00경부터 소수병력의 적 정찰대가 접근하기 시작하다가 22:00경부터 적 대부대 병력이 과상적으로 돌진해 왔다. 피아간 백병전이 전개되었는데, 적은 200여구의 시체를 남겨놓고 일단 북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17연대장은 445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예비대인 제2대대와 236고지의 제3대대를 공격 진출케 하여 제2대대는 445고지 4부 능선을, 제3대대는 노당리 일대를 각각 점령하였다. 13일 17연대 제1대대는 계속 증강되는 적의 압력으로 부득이 양동리 선으로 이동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445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기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대구에서 새로 편성되어 부대정비를 하고 있던 제26연대를 급히 안강지구 작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는 한편 의성에서 8월 12일 경주로 이동한 제1연대를 안강지구로 전진케 하였다.

3) 기계 탈환전(8월 13일~8월 18일)

13일 제26연대는 안강 옥산 서원동(玉山 書院洞)에 위치한 125고지에서 북쪽 563(어래산, 서두방재, 玉山池 동쪽 산) 고지를 연하는 능선 일대를 점령하여 자옥산(紫玉山, 옥산서원 서쪽) 부근에서 침입해 오는 적에 대비하였고, 제1연대는 안강 양동리에 지휘소를 개설하였으며, 제17연대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다음 유금리(有琴里, 경주시 강동면) 129고지 부근을 점령하여 적 유격대의 침투에 대비하고 있었다.

양동리 부근의 제1연대 제1·2대대는 14일 06:00경에 공격해 온 적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미 공군도 지원하여 적진을

강타함으로 적은 심한 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해 버렸다.

제1군단장은 기계에 침입한 적을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 ‘제26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제1연대 및 해군육전대로 하여금 기계 남쪽과 동쪽에서 적을 견제케 하고, 새로이 제18연대와 기갑연대를 기계 서쪽 작전에 참가시켜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한다.’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15일 제1군단장은 제18연대장에게 “단시일 내에 기계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8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로서 공격제대를 편성하여 기계를 향해 동진케 하였는데 이때 제18연대 우측에는 기갑연대(병력은 1개 대대 정도)가 측방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18연대 1대대는 이튿날 용기동(龍基洞, 기북면) 340고지를 향해 진격하여 18:00에 이를 점령하고 사수방어에 임하였는데, 이때 점령한 340고지는 구암동(九岩洞, 착오?) 비학산 중간지점에 위치한 작전상 유리한 거점의 지형이었다.

이날 미 공군은 적이 집결하고 있던 구지동(九旨洞, 기계면)에 10여 차 기총소사를 가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제17연대는 오전의 445고지 공격이 부진하다가 미 공군의 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아 18:00에 고지를 점령하고 이어 기계를 향해 전진하였다.

양동리의 제1연대는 11:00부터 미 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아 치열한 전투 끝에 17:00에 각각 110고지와 236고지를 점령하였다.

용기동의 340고지에서는 17일 03:00경 적 1대대 병력이 제18연대 방어진지를 공격해 왔으나 제1·2대대가 이를 격퇴하여 적은 200여구의 시체를 남겨둔 채 12:00에 비학산 부근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아군은 19:00에 신기동(新基洞, 새터, 기북면 용기리의 자연부락, 용기2리)까지 진출하여 좌측에 제18연대, 우측에 기갑연대를 배치하여 기계부근의 적에게 측방으로부터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445고지의 제17연대 05:00의 적 내습을 잘 막아내어 17:00에 적을 기계 북쪽으로 격퇴하였다.

양동리의 236고지 및 110고지의 제1연대 제1·2 양 대대는 정면의 적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여 이 고지 북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연대 제3대대도 포 지원을 받으면서 우측에서 작전하고 있던 민(閔)부대의 진출 지점인 포항 터널 부근의 고지를 무난히 점령하여 민 부대와 진지를 교대하게 되었다.

신기동 좌우측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이 부근에 출몰하는 적을 견제하다가 18일 06:00에 기계 앞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공격부대는 적 주력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13:00에는 제18연대의 일부병력이 기계에 돌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산리(안강읍 노당리 자연부락)에 집

결 중이던 제17연대 제1대대도 기계 남쪽에서 북진하기 시작하여 제18연대와 협동으로 기계내의 잔적을 수색하였다. 기계 일대는 적 시체가 무수히 산재하여 그 처참한 광경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125고지와 563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제26연대도 이 지역에서 용산(龍山?) 부근으로 공격 진출하였으며 기갑연대는 기계 서쪽 봉계동(鳳溪洞, 기계면소재지 서쪽 3km)에서 운주산(雲住山, 기계면소재지 서쪽 8~9km, 영천시와 경계지역)부근의 적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기계 부근에서 아군에 대항하고 있던 적은 이미 전투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부 패잔병력 만이 비학산으로 퇴각하는데 급급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의 전과는 적 사살 1,245명, 포로 17명, 무기 탄약 다수를 노획하였고 아군의 손실은 전사 92명, 부상 171명, 실종 500여 명이었다.

기계가 탈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은 제1군단장에게 격려의 전문을 보내는 동시에 8월 19일에는 직접 제1군단을 방문하여 전방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미군에서도 기계 탈환작전을 극구 찬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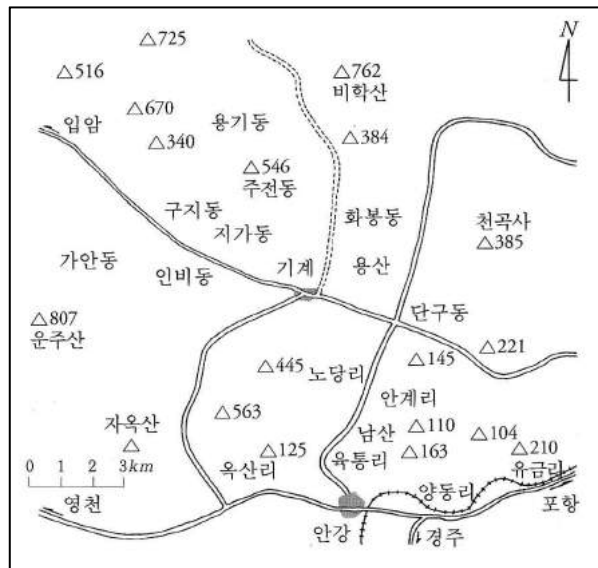
4) 비학산(飛鶴山) 전투(8월 18일~8월 26일)

적 제12사단은 8월 14일부터 아군에 의해 감행된 기계 탈환전으로 막심한 손실을 입고 붕괴되어 17일 밤부터 비학산 지역으로 총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적 제2군단장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해편(解編)하여 심한 타격을 받고 괴멸 상태에 있는 적 제12사단에 그 병력(1,500명)을 흡수케 하고 신병 2,000명을 보충하여 총 병력 5,000으로 이 사단을 개편하였다. 북한군 중에서도 정예부대로 손꼽힌 제12사단이 그간 얼마나 심한 손실을 입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8일 오후 기계부근의 잔전(殘敵) 수색전을 마친 아군은 새로운 전투에 대비하여 19일 새 진지를 편성하였다.

구지동(九旨洞, 기계면) 부근으로 진출한 제18연대는 관천동(冠川洞, 기북면) 369고지 좌로부터 제1, 3대대가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17연대는 제18연대 좌측인 계전동(桂田洞, 기계면) 258고지에서 동쪽으로 345고지와 화봉동(禾峰洞, 기계면)을 연



결하는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6연대는 제17연대의 우측방 용산 부근의 232고지 북쪽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1연대는 북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는 한편 제1대대는 도음산(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와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경계의 산, 천곡사가 있음) 서쪽의 무명고지를, 제2대대는 295고지를 각각 확보하고 있었다. 이 연대의 제3대대는 예비대로 양동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1군단장은 영천지구의 적정이 활발해지자 기계 전투에 참전하고 있던 기갑연대를 8월 20일부로 영천에 이동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군육전대도 원대 복귀토록 조치하였다.

20일 22:00 현재 제17연대는 용기동~352고지~546고지를 연하는 선에, 제26연대는 용산 북방 2.5km지점의 247고지까지 각각 진출하였다.

21일 제1연대는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사단 예비대가 되어 화봉동 일대에 집결하여 방어선의 우측 부근의 적에 대비하게 되었다.

수도사단 좌측 부대인 제18연대는 22일 18:00경 적 약 2개 대대 규모 병력의 내습을 받아 이 전투에서 제3대대가 무너지고 제2대대의 지원도 성과를 못 보게 되자 연대장은 구지동 부근에 낙오자선을 설정하여 낙오병을 수습하고 용기동의 677고지(침곡산 또는 그에 연한 능선인 듯)에 다시 배치하였다.

제17연대는 22~23일에 걸쳐 비학산과 그 부근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병력의 손실이 커 부득이 현 전선만을 견지하여 적과 대치했다. 한편 좌측 부대인 제18연대는 계속되는 적의 압력으로 현 전선 남쪽 2km지점으로 이동하여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23일 수도사단 소속인 권태홍 대위의 지휘로 화대리 태봉 아래 매복하고 있던 국군 부대에 적이 내습하여 피아간의 전투가 치열하였다. 이때 이 부대를 지휘하던 권태홍 대위는 장렬히 전사하였다.

24일에는 17연대 주력부대로 하여금 적에 대한 정면공격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25일 적은 06:00에 아군 제18연대 제2, 3대대 정면에 각각 1개 대대 병력으로 내습해왔다. 아군은 용전 끝에 13:00경 인비동(仁庇洞) 선으로 이동하여 남하하는 적을 계속 저지하고 있었고, 제17연대는 좌측부대인 18연대와의 전선 유지상 기계 북쪽 2km 지점인 345고지까지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다.

5) 제2차 기계·안강 방어전(8월 27일~9월 3일)

비학산전투에서 수도사단 좌측 부대인 제18연대는 적의 진출로 인비동 선까지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7연대와 제26연대도 전선을 정리하려고 기계 북쪽 지가동(芝柯洞, 기계면소재지 서쪽 3.5km)~단구리(丹丘里, 기계면소재지 동쪽 5~6km) 선으로

이동하면서 기계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현 방어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8월 27일 비학산 전투에서 이동해 온 제18연대로 하여금 입암~기계 도로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진출시켜 가안동(駕安洞, 기계면, 죽장면과 접경지)~관천동(冠川洞, 기계면, 가안리 동쪽 4km)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운주산 부근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제26연대 방어지역의 형세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기계에 집결 중인 제1연대를 295고지 부근의 능선 일대에 이동한 다음 제26연대 잔여 병력과 협동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도록 하였으며 제 17연대는 기계 북방 현내동(縣內洞, 기계면소재지) 고지능선 일대에서 현 방어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사단 좌측 방어선인 운주산 부근에서 적 제15사단의 일부병력이 출현하고 있었다. 제18연대는 이들 침입해온 적과 30일 10:00부터 교전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제17연대도 고전을 겪고 있었다. 상황이 급하게 되자 사단장은 야간에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인비동 일대에, 제17연대는 기계 남쪽 3km지점의 문성동(文星洞, 기계면) 334고지와 노당리 445고지를 연하는 능선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남하하는 적에 대비키로 하였다. 이로써 기계는 또 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31일에 제1군단 부군단장(金白一 준장)이 제17연대를 방문하여 기계·안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계를 재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7연대장은 09:00와 10:00에 각 대대로 하여금 용산·노당재·445고지의 적을 공격토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9월 1일 아침에 제17연대는 재차 공격준비를 하던 중 적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제3대대 정면과 제1대대 정면인 용산 232고지에 나타나 피아간에 일진일퇴의 격전이 전개 되었다.

이날 제1군단장에는 부군단장인 김백일 준장이, 수도사단장에는 헌병사령관이던 송요찬(宋堯讚) 대령이 임명되었다. 제1군단장은 적의 9월 공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 방어선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견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신임 수도사단장에게 포항~안강~영천 선을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수도사단장은 초도순시에서 제17연대장에게 445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9월 2일 04:00에 노당재 하단부에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대기 중이던 제17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유홍식(柳洪植) 대위는 남측 방에서 전진해 오는 4대의 전차를 발견하였는데, 처음에는 미군 전차라 여겼으나 05:00경 날이 밝아오자 적의 전차임이 확인되었다. 제5중대장은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 30m거리에 적의 전차가 접근하자 로켓포의 제1탄을 적 선두전차의 우측부를 향하여 발사하였다. 순식간에 화염에 싸이게 된 적 전차는 바로 정지되고 전차병이 탑문을 열고 좌우를 살피는 순간 소총수가 재빨리 사격하여 이를 사살하였다. 뒤 따르던 전차는 뒤로 방향전환 하여

전속력으로 도주하였는데 이 전차는 이날 아 공군의 공중 사격으로 모두 격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잠시 후 제2대대 전면에는 기계도로를 따라 약 1개 중대 가량의 병력이 행군 중대로 다가오고 있었으나 군장비가 우군과 같아서 피아를 구분할 수가 없었고, 제5중대장의 상황보고에 접한 대대본부가 좌측 전방에서 분산되어 남하 중이던 제18연대 병력으로 오판하여 모두를 방심하고 있었다. 실은 전차의 뒤를 따라 남하하던 적병이었다. 그들은 아군 진지 전방 30m까지 접근하더니 급히 대오를 산개대형으로 바꾸고 고함을 치면서 일제 사격과 수류탄을 던지며 돌격해 왔다. 상황이 급해진 제2대대는 사격과 수류탄으로 응전하였으나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좌측 부대인 제3대대에서도 적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17연대장은 연대 정보주임인 유창훈(柳昌燾) 대위로 하여금 특공대를 조직케 하여 455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특공대장인 유대위는 대원 30여명에게 각기 수류탄 2발과 소총탄을 분배한 다음 445고지 하단부까지 2km거리를 구보로서 행진하여 이 고지 하단부에 이르러 대원들을 산개시키고 고지 정상을 향하여 돌진해 갔으나 이미 적병은 퇴각한 뒤였다.

방향을 바꾸어 제3대대 관측소부근에 이르러보니 적 부상병 12~13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동무, 동무”하면서 손을 흔드는가 하면, 아군 부상병 20명이 위생병을 부르면서 신음하고 있었고 적과 아군 시체 200여구가 뒤섞여 혈투 후의 처절한 모습이였다.

현지에서 제17연대장은 아군 부상병을 응급처치케 하였으며 잔존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하는 동시에 특공대장으로 하여금 제3대대를 지휘토록 하였다.

사단 좌측부대인 제18연대는 인비동의 주저항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9월 1일 밤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방서선이 돌파 당하게 되자 연대장은 연대병력을 재수습하고는 영천을 경유 3일 경주로 이동하였다.

제18연대 진지에 공격하여 온 적은 그 뒤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서 운주산을 경유하여 아군 후측방(後側方)으로 남하하다가 3일 밤에는 안강 서쪽 5km 지점인 옥산리에 나타났다.

제1군단장은 옥산리에 침투하여 안강을 위협하는 적에 대비하여 8월 28일부터 효자동에 위치한 제26연대를 제3사단에서 수도산으로 배속 변경하여 안강 부근으로 이동케 하였다. 제26연대는 차량이동으로 안강에 도착한 다음 연대전방지휘소를 개설하는 한편 제3대대를 안강 서쪽 3km의 수일리(풍산 안강공장 전면 자연부락) 일대를 점령케 하고, 제2대대를 제3대대 우측방에 배치하였으며,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안강에 위치케 하였다. 일선 대대가 부대배치 하는 동안 적의 포탄이 산발적으로 떨어졌다.

445고지부근에서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오던 제17연대도 제1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3일 12:00경 안강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로써 8월 초순 기계 북쪽에서 적 제12사단의 출현으로 시작된 기계·안강 전투는 9월 4일 수도 사단의 방어선이 안강 남방으로 이동하여 경주북방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다.

4. 포항 경찰의 6.25 전투

그동안 시사에는 6.25 전쟁에서 경찰에 관한 기록이 없어 매우 유감이었으나 최근에 다행히 이 자료를 입수하여 포함시킨다.

6.25 전쟁에서 적의 남진은 무척 빨랐다. 그 선발대가 진출해오자 7월 28일에 죽장 지서, 8월 8일에는 기북지서가 철수하였다.

8월 11일 새벽에 적 부대가 포항시 외곽지에서 시내로 침입하여 왔으므로 포항경찰서의 병력이 수도산 고지에서 달전면 대련동(현 흥해읍 대련리)으로 이어진 지역에 방어전을 구축하고 40여 분간 교전하여 경사 최영달, 순경 최복돌, 김헌식, 김종철, 이덕암, 정천영, 홍석수 등 7명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포항경찰서는 부득이 경비선을 이용하여 구룡포지서로 철수하고 그곳에 임시경찰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날 흥해지서 주임 경위 오상태 등 직원 7명은 침공하는 적 5명을 사살하고 지서를 사수코자 하였으나 오상태 경위는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포항경찰서 지휘본부는 9월 5일에 대송지서로 이동하여 포항 탈환을 엿보던 중 9월 15일에는 국군이 포항시가전에 돌입하자 경사 임찬식이 지휘하는 경찰특공대 20명이 16일에 연일지서를 탈환하였다.

9월 17일에는 국군 제3사단과 함께 포항경찰서 총병력이 형산강 도하작전에 투입되어 적 사살 25명에 총기 57정 및 실탄 3만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9월 19일에는 경사 이동덕, 손수익이 지휘하는 사찰형사대 및 경사 김병익이 지휘하는 경찰특공대 등 선발대가 포항에 입성하고 계속하여 9월 20일에는 포항시를 완전히 복구하였다. 그러나 이날 유엔 공군이 포항을 적진으로 오인하고 폭격하여 포항경찰서가 소실되고 말았다. 포항시가 탈환된 다음에도 공산패잔군이 곳곳에 남아서 준동하였다.

1951년 2월 7일 인민군 패잔병들이 신광면 기일동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포항경찰서 습격을 엿보고 있어서 특공대장 경사 김병익이 지휘하는 유격대원 20명이 밤중에 적진에 돌입하여 적정을 탐지하고 기습을 감행하여 신광면 마북동에서 적 사살 5명, 생포 1명, 총기 3정, 실탄 15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해 2월 10일에는 죽장면 두마리에서 경비주임 경위 장상길이 지휘하는 특공대 30

명이 인민군 제10사단 후속부대를 기습하여 적 사살 12명, 생포 2명, 총기 15정을 노획하였다. 2월 13일에는 기계면 대곡산에서 기북출장소 주임 김진태경사가 경찰관 6명 민보단원 12명을 지휘하여 적의 거점을 야간 기습하여 적 사살 7명, 생포 5명, 총기 4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는 한편 오천 주둔 미 항공대에 연락하여 연일 폭격을 감행하고 적을 섬멸했다.

포항경찰은 6.25전쟁 중 적 사살 423명, 생포 109명, M1 소총 3,709정, 칼빈 소총 163정, 소련제 소총 717정, 중기관총 6문, 경기관총 15문, 박격포 7문, 각종 실탄 17만 발을 노획했다. 부역한 남자 1,391명과 여자 82명 등 총 1,473명을 자수하도록 했으며 193명을 검거해 163명은 석방하고 30명은 송치했다.

포항경찰은 순직 16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9명, 의경 5명), 행방불명 9명(순경 8명, 의경 1명), 상이 21명(순경) 등 모두 46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경찰서 건물, 비품 등의 소실과 파괴로 268,810,000원(당시 화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5. 기념시설물

포항지역 아군의 승전을 기념하고 특히 학도병들의 살신호국(殺身護國)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1)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6.25전쟁 당시 학생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자진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로 7,000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특히 포항에서는 육군 제3사단 소속 학도의용군 71명이 포항여중(현 포항여고)에서 단독으로 전투를 벌여 김춘식 외 47명이 산화하였다. 그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포항시에서 이 기념관을 건립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96번지 속칭 탑산 아래에 있다. 현재 최기영 씨가 관리회장을 맡고 있다.

2) 전몰학도충훈탑

6.25전쟁에서 산화한 전몰 김춘식 외 47명 등 모두 1,394위의 영령들이 봉안되어 속칭 탑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탑산이란 속칭도 이 충훈탑에서 유래한 것이다.

3) 충혼비

6.25 전쟁에서 희생된 포항(당시 영일군 포함) 출신 호국영령 최석규 외 1,278위를 봉안하고 있다. 1964년에 건립되었으며 포항시 북구 덕수동 산 4-3번지 수도산에 있다.

4) 학도의용군 6.25 전적비

1950년 8월 11일 71명의 학도의용군이 북한군과 싸웠던 현장인 포항여고(당시 포항여자중학교) 정문 바깥에 있다. 1977년 12월 15일에 세워졌다.

6.25 당시 이 자리는 밭이었고 수북 당시 밭 가운데 다수의 유해가 묻혀 있었다. 뒷날 학교 울타리 밑에 묻힌 유해도 발굴하여 신원을 밝혀낸 바 있다.

5) 미해병제일비행단 전몰용사충령비

1952년 12월 22일에 건립하여 포항역 광장에 있던 것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산1번지(송도해수욕장 진입로 변)로 이전하였다.

6) 포항지구전투전적비

1950년 9월 1일부터 동 9월 5일까지의 수도사단 포항지역 사수를 기념하여 1959년 3월 31일 육군 제1205건설공병단에서 건립, 위의 충령비와 함께 있다.

7) 호국학도충의탑

포항중학교(舊制 中學) 재학 중 6.25 전쟁에 참전한 호국학도들의 충의를 기려 포항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2008년 모교 구내에 세웠다. 전사자 9명, 전상이국가유공자 7명, 무공수훈국가유공자 4명, 생환자 62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8)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Walker Line) 기념비

해도근린공원에 세워 2009년 9월 19일 제막되었다.

9) 이우근 학도병 편지 비(碑)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광장에 세워 2009년 8월 11일에 제막되었다.

제5절 경제개발 시대

이 절에서는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유신시대 전까지를 서술한다. 세칭 제3공화국 시대다. 이를 ‘경제개발 시대’라고 한 것은 정부가 후진적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목표로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여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에서 탈출한 새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등의 군부는 민간정부인 장면내각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해산하며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 군사혁명위원회(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권력을 집중시켜 군정을 실시하다가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새 헌법에 의한 집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로써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하였으며 국회의원은 선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별로 선출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병행되었다.

1. 제5차 개헌 국민투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1962년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것이 제5차 헌법개정이며 사실상의 헌법제정이라 할 수 있다.

제5차 개헌 국민투표 개표상황 (1962. 12. 17)

구분 지역		투표인수	투 표 수 (투표율%)	찬반투표수 및 찬성률(%)			무효표/ 기권수
				찬성(%)	반 대	계	
전 국		12,412,798	10,585,998 (85.3)	8,339,333 (80.6)	2,008,801	10,348,134	237,864 1,826,800
경 북		1,824,636	1,586,984 (87.0)	1,261,243 (81.4)	287,778	1,549,021	37,963 237,652
포 항 시	(구) 포항시	27,599	23,754 (86.2)	18,634 (79.8)	4,717	23,351	403 3,805
	(구) 영일군	97,161	84,740 (87.2)	69,160 (83.6)	13,569	82,756	1,984 12,421
	계	124,760	108,494 (87.0)	87,794 (82.7)	18,313	106,107	2,387 16,226

2. 제5대 대통령 선거

헌법개정 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된 다음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는 박정희가 군부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공화당 후보로, 전 대통령 윤보선이 대표적 야당인 민정당의 후보로 각각 등록하였다. 박정희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영일군에서는 박 후보가 월등한 우세를 보였지만 포항시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을 볼 수 있다.

제5대 대통령선거 득표상황 (1963. 10. 15)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民主共和黨 朴正熙	民政黨 尹潽善	기 타 후 보	계	
전 국	12,985,051	11,036,175 (80.5)	4,702,640 (46.6)	4,546,614 (45.1)	831,944 (8.3)	10,081,198	954,977 1,948,840
경 북	1,940,975	1,653,766 (85.2)	837,124 (55.6)	543,392 (36.1)	123,814 (8.2)	1,504,330	149,436 287,209
포 (구) 항 포항시	29,496	25,381 (86.1)	11,071 (46.7)	11,315 (47.7)	1,314 (5.5)	23,700	1,681 4,115
영일군	101,214	83,429 (82.4)	40,195 (53.8)	27,483 (36.8)	7,065 (9.5)	74,743	8,686 17,785
시 계	130,710	108,810 (83.2)	51,266 (52.1)	38,798 (39.4)	8,379 (8.5)	98,443	10,367 21,900

※ 기타후보는 張履奭, 秋風會 吳在泳, 正民會 卞榮泰 등 3인임

3. 제6대 국회의원 선거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정당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포항시·영일군·울릉군을 합하여 경상북도 제5지역구로 편성되고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였다.

선거인 139,033명에 그 73.8%인 102,568명이 투표하였고 유효투표수는 100,218표로 민주공화당의 김장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5지역구(포항·영일·울릉)득표상황 (1963. 11. 26)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연령	본적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자유민주당	李相冕	남	44	경북	서울시 중구 동자동	무직	立敎大學 神學校 중퇴	제5대 민의원	2,294	
국민의당	金憲秀	남	56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회사 사장	東京文理大學 2년 중퇴	協同公司사장	12,427	
보수당	孫慶千	남	49	경북	포항시 동빈로	상업	독학	보수당 경북제5 지구당위원장	2,148	
민주당	崔泰能	남	54	경북	영일군 의창면	농업		제5대 민의원	5,363	
민정당	崔遠壽	남	51	경북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무직	경성고보(京城高普) 수료	영일군수, 제2대 민의원	23,846	
민주공화당	金長涉	남	53	경북	영일군 의창면	변호사	日本明治大學 법학부졸	내무·농림부차관, 참의원·민의원	44,363	당선

4. 제6대 대통령 선거

1967년 5월 3일에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후보가 당선되었다.

박정희 후보의 득표상황을 보면 전국에서는 유효투표수의 51.4%인데 대하여 경북에서는 64.0%, 포항시에서는 61.4%, 영일군에서는 62.1%이다.

포항시와 영일군의 득표율이 비슷하다.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물러가고 지역주의가 작용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제6대 대통령선거 득표상황 (1967. 5. 3)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新民黨 尹潽善	民主共和黨 朴正熙	기타후보	계	
전국		13,935,093	11,645,215 (83.6)	4,526,541 (40.9)	5,688,666 (51.4)	843,514 (7.6)	11,058,721	586,494 2,289,878
경북		2,031,093	1,784,273 (87.8)	447,082 (26.4)	1,083,939 (64.0)	162,341 (9.6)	1,693,362	90,911 246,820
포 항 시	(구) 포항시	31,224	27,156 (86.9)	8,429 (32.1)	16,118 (61.4)	1,689 (6.4)	26,236	920 4,068
	(구) 영일군	104,774	91,082 (86.9)	23,912 (27.9)	53,289 (62.1)	8,638 (10.1)	85,839	5,243 13,692
	계	135,998	118,238 (86.9)	32,341 (28.9)	69,407 (61.9)	10,327 (9.2)	112,075	6,163 17,760

※ 기타후보는

李世鎮, 韓國獨立黨 錢鎮漢, 民衆黨 金俊淵, 統韓黨 吳在泳.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6월 8일에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구는 제6대 총선과 같은 경북 제5선거구였으며 4인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각종 수법의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관권 개입, 대리투표, 막대한 금품이 살포되었다고 한다.

선거인 144,381명에 120,483명이 투표하여 83.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유효투표수는 116,508표로 김장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5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1967. 6. 8)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본적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중당	河泰煥	남	1913. 1.17	경북	포항시 신흥동	무직	日本京都立命館 大學法學部 4년 졸업	3,4대 민의원의원, 국방분과위원회위원장	39,488	
신민당	崔遠壽	남	1912. 8.25	경북	포항시 대흥동	회사 중역	경성제일고보(京城第一高普) 수학	영일군수, 제2대 국회의원	20,411	
민주 공화당	金長涉	남	1910. 8.17	경북	영일군 의창면	국회 의원	明治大學 法學部 4년 졸업	참의원, 내무부차관, 판검사	47,868	당선
민주당	李相冕	남	1919. 5. 3	경북	포항시 신흥동	상업	東京立教大學 神學 중퇴	제5대 민의원 당선	1,361	

한편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전국구 선거에서 포항지역 출신으로 민주공화당 후보 이성수가 순위 23번으로 등록하여 당선되었다.

6. 제6차 개헌 국민투표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정한 헌법을 3기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선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된 후 1969년 10월 17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 투표에서 당시의 포항시와 영일군은 투표율이 각각 86.8%와 90.4%, 찬성투표율에서도 각각 76.7%와 96.5%로 모두가 전국 또는 경북을 앞질렀다.

포항지역의 친여적 성향과 동시에 관권 개입이 심하였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6차 개헌 국민투표 상황 (1969. 10. 17)

구분 지역		투표인수	투표수	투표율 (%)	찬·반 표수 및 찬성율			무효표 기권수
					찬 성 (찬성율)	반 대	계	
전 국		15,048,925	11,604,038	77.1	7,553,655 (67.5%)	3,636,369	11,190,204	413,834 3,444,887
경 북		2,162,063	1,833,453	84.8	1,387,750 (78.2%)	386,514	1,774,264	59,189 328,610
포 항 시	(구) 포항시	37,847	32,874	86.9	25,230 (78.3%)	6,980	32,210	664 4,973
	(구) 영일군	99,352	89,871	90.5	72,137 (83.1%)	14,624	86,761	3,110 9,481
	계	137,199	122,745	89.5	97,367 (81.8%)	21,604	118,971	3,774 14,454

7. 제7대 대통령 선거

제7대 대통령선거는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되었다. 1969년의 개헌에 성공한 집권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후보를 내세웠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40대 기수론을 주창한 3인이 당 공천에서 경합하여 김대중이 지명을 받고 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투표성향을 분석하면 박정희 후보의 득표비율은 전국적으로 53.2%인데 경북에서는 76.5%, 포항에서는 77.1%였다.

득표수에서 박정희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1.18배인데 대하여 경북에서는 3.24배, 포항에서는 3.47배에 이른다. 심각한 지역주의의 실상이 드러난다.

제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71. 4. 27)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수
				民主共和黨 朴 正 熙	新民黨 金 大 中	기타 후보	계	
전 국		15,552,236	12,417,824 (79.8)	6,342,828 (53.2)	5,395,900 (45.3)	184,490 (1.5)	11,923,218	494,606 3,134,412
경 북		2,147,658	1,833,063 (85.4)	1,333,051 (76.5)	411,116 (23.3)	18,650 (1.1)	1,762,817	70,246 314,595
포 항 시	(구) 포항시	38,153	32,763 (85.9)	23,484 (73.4)	8,366 (26.1)	149 (0.5)	31,999	746 5,390
	(구) 영일군	104,751	92,229 (88.0)	69,037 (78.4)	18,281 (20.8)	762 (0.9)	88,080	4,149 12,522
	계	142,904	124,992 (87.5)	92,521 (77.1)	26,647 (22.2)	911 (0.8)	120.079	4,913 17,912

* 기타후보는 朴己出, 自民黨 李鍾潤, 正義黨 陳福基 등 3인임.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곧 이어 1971년 5월 25일에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구의 변동으로 포항시가 울릉도와 합쳐져 경북 제6지역구, 영일군은 경북 제7지역구로 각각 편성되었다.

제6지역구에서는 3인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며 선거인 50,877명에 40,692명이 투표하여 80.0%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유효투표수는 40,044표로 그 가운데서 김병윤 후보가 24,20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6지역구(포항시·울릉군) 득표상황 (1971. 5. 25)

기호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본적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공화당	金柄潤	남	1922. 5. 19	경북	포항시 신흥동	무직	포항수산대 졸업	포항시장, 포항수대학장	24,205	당선
2	신민당	崔遠壽	남	1912. 8. 25	경북	서울 용산구 청파동	무직	경성제일고보 (京城第一高普) 졸업	제2대 국회의원	14,317	
3	국민당	鄭基福	남	1919. 10. 2	경북	포항시 대도동	농업	대졸	무	1,102	

제7지역구에서도 3인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선거인 98,249명에 76,705명이 투표하여 78.1%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 74,602표 가운데서 정무식이 44,244표로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북제7지역구(영일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71. 5. 25)

기호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본적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공화당	鄭茂植	남	1924. 3.20.	서울	영일군 의창면	무직	국학대학 졸업	민주공화당 제7지구당위원장	44,244	당선
2	신민당	方茂成	남	1941. 7.18.	경북	영일군 연일면	정당인	고려대 대학원 졸업	4.19전국재학생연맹 중앙상임위원	26,534	
3	국민당	金東元	남	1935. 2.17.	경북	포항시 용흥동	농업	신라대학 1년 중퇴	지방의회의원	2,153	

제8대 국회는 박정희가 1972년 10월 17일에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제6절 유신시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979년 10월 26일 그의 피살까지를 이절에서 서술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하오 7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쿠데타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3권 분립이 폐기되고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유신주동세력과 관제언론은 이 조치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국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1인 독재와 영구집권을 목표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친위쿠데타라고 하겠다.

1. 제7차 개헌 국민투표

비상계엄 후속조치인 제7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그 해 11월 22일에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에는 일체의 반대운동이나 반대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언론을 동원하여 찬성을 유도하고 관권이 개입하였다. 투표나 개표의 관리가 모두 관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발표된 투표상황으로 민심의 동향이나 실제의 찬·반양상을 알기는 어렵다.

제7차 개헌 국민투표 상황 (1972. 11. 21)

구분 지역		투표인수	투 표 수 (투표율)	찬 · 반 투표수 및 찬성율			무효표 기권수
				찬 성 (찬성율)	반 대	계	
전 국		15,676,395	14,410,714 (91.9%)	13,186,559 (92.3%)	1,106,143	14,292,702	118,012 1,265,681
경 북		2,211,570	2,108,501 (95.3%)	1,983,081 (95.0%)	104,873	2,087,954	20,547 103,069
포 항	(구) 포항시	43,669	42,875 (98.2%)	41,828 (98.0%)	872	42,700	175 794
	(구) 영일군	100,292	95,663 (95.4%)	92,065 (96.9%)	2,937	95,002	661 4,629
	계	143,961	138,538 (96.2%)	133,893 (97.2%)	3,809	137,702	836 5,423

2.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2년 11월 21일의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 한 정부는 새 헌법에 따라 12월 1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대의원 선거 당선자는 黃大鳳, 崔承海, 朴京鎬, 姜永鎭, 姜信雨(이상 5인 포항시), 徐榮兌, 梁泰俊, 李孝熙, 崔炳律, 車萬洙, 李相默, 孫三翼, 李相瑾, 李柄驥, 金道植, 李燾守, 李尙雨, 崔萬鎬, 徐錫柱(이상 14인 영일군)씨 등 모두 19인이었다.

이 선거로 구성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에 대통령을 선거하는 절차를 밟아 박정희는 재직 대의원 2,359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서 무효 2표를 제외한 2,357표를 얻고 제8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였다.

3.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3년 2월 27일에 임기 6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여 지역구 선출의원 수가 줄고 1선거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의 수는 더욱 줄었다. 포항시·영일군·영천군·울릉군이 경북 제3선거구에 편성되었다.

4인이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선거인수 247,517명에 190,47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7.0%를 기록하였고 유효투표수 185,978표 가운데서 정무식 후보가 65,891표, 권오태 후보가 55,95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3선거구(포항·영일·영천·울릉) 득표상황 (1973. 2. 27)

기호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공화당	鄭茂植	남	1924. 4.30	영일군 의창면	무	국학대학 법학과졸업	제8대국회의원, 중앙대부속중 육성회장	65,891	당선
2	신민당	文達植	남	1917. 4. 1	포항시 대신동	수산업	포항수산 강습회졸업	포항시장	29,852	
3	신민당	曹圭昌	남	1925. 11.20	영천군 화북면	상업	미국 오하이오 대학원수료	아세아기술개발회장, US해외전미국40개 연쇄회사회장	34,281	
4	무소속	權五台	남	1927. 1.15	영천군 영천읍	회사 사장	국방대학원, 고대경영대학원수료	진양건설Co사장, 해강산업Co대표이사사장	55,954	당선

4. 헌법신임 국민투표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날로 거세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만일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75년 2월 12일에 이 제4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반대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관권의 개입으로 일방적인 투·개표가 이뤄졌다. 찬성표가 전국적으로 74.4%, 포항(구 포항시와 영일군)은 82.6%에 이르렀다.

헌법신임 국민투표 상황 (1975. 2. 12)

지역	구분	투표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반 투표수 및 찬성율			무효표 기권수
				찬 성 (찬성율)	반 대	계	
전 국		16,788,839	13,404,245 (79.8%)	9,800,201 (74.2%)	3,370,085	13,170,286	233,959 3,384,594
경 북		2,321,415	2,029,807 (87.4%)	1,629,468 (81.6%)	367,942	1,997,410	32,397 291,608
포 항 시	(구) 포항시	55,844	48,420 (86.7%)	39,294 (81.9%)	8,659	47,953	467 7,424
	(구) 영일군	100,384	92,624 (92.3%)	75,151 (82.9%)	15,519	90,670	1,954 7,760
	계	156,228	141,044 (90.3%)	114,445 (82.6%)	24,178	138,623	2,421 15,184

5.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포항은 2개 선거구로 갈라져 각 4인을 선출하고 영일군은 종전과 같았다.

당선자는 姜永鎮, 崔承海, 徐鍾烈, 姜信雨, 趙世昌, 李相伯, 宋世仁, 朱成源(이상 8인 포항시), 安三用, 梁泰俊, 李峻炯, 李孝熙, 片富萬, 申成喆, 黃奉澤, 李相瑾, 李元杓, 李鍾東, 金相坤, 李尙雨, 崔萬鎬, 徐錫柱(이상 14인 영일군) 등 22인이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에 의하여 박정희는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8년 7월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재적대의원 2,851명 중 2,578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독후보인 박정희는 무효 1표를 제외한 2,577표를 얻었다.

6.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인 1978년 12월 12일에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5석이 줄어들고 야당인 신민당은 9석이 늘었으며 득표율에서 신민당이 민주공화당보다 1.1%가 많은 이변을 낳았다.

포항이 속한 경북 제3선거구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선거 결과 선거인 수 301,320명에 231,1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6.7%를 기록하였으며 유효투표수 228,346표 가운데서 무소속의 권오태 후보가 73,560표, 신민당의 조규창 후보가 66,868표를 각각 얻어 당선되었다.

여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 2인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천지역 출신이며 인구가 많은 포항 출신이 모두 낙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경북제3선거구 후보자별득표상황 (1978. 12. 12)

기호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공화당	鄭茂植	남	1924. 4. 30	포항시 덕산동	국회 의원	영남대대학원 행정경영학과졸	제8·9대 국회의원	48,781	
2	신민당	曹圭昌	남	1925. 11.25	영천군 화북면	재미 실업가	미국남가주대학 국제경제학수료	UN군총사령부민사비서관 재미상공회의소부회장	66,868	당선
3	민주 통일당	安柄達	남	1933. 11. 1	영천군 영천읍	농업	동국대학교 정외과졸	전국4.19부상동지회회장 한국사회사업대학강사	16,490	
4	무소속	權五台	남	1927. 1. 15	영천군 영천읍	국회 의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졸	국회무소속회장 육군제2훈련소부소장	73,560	당선
5	무소속	金炯秀	남	1942. 2. 5.	영일군 지행면	언론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졸	고려대학교총학생회장 동양통신외신부기자	14,148	
6	무소속	金相淳	남	1917. 1. 22	포항시 죽도2동	농업	만주국립대학 하르빈학원3년수료	대진기업회장	8,499	

제7절 신군부 시대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부터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전까지를 이 절에서 서술한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시해되는 10.26사태가 일어났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다가 그 해 12월 6일 제2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보궐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민주주의의 부활을 눈앞에 두었으나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확대 등을 거치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신군부 세력 중심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위원을 지명하여 입법회의를 구성하였다. 포항 출신 이진우는 입법위원에 임명되어 신군부정권의 탄생을 위한 법 제정에 참여하였다. 한편 박경석은 신군부가 주도한 민주정의당의 창당에 참여하였다. 신군부는 대통령간선제 헌법 초안을 마련하여 입법회의를 거친 다음 국민투표로써 이를 확정하였으며,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인단은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 제8차 개헌 국민투표

10.26사건 후 12.12군사반란과 5.17비상계엄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회의라는 전위기구(前衛機構)를 만들어 새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군부는 그간 정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1980년 10월 22일에 개헌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제8차 개헌 국민투표 상황 (1980. 10. 22)

구분 지역		투표인수	투표수 (투표율)	찬· 반 표수 및 찬성율			무효표/ 기권수	
				찬 성	반 대	계		찬성율(%)
전 국		20,373,869	19,453,926 (95.5%)	17,829,354	1,357,673	19,187,027	92.9	266,899 919,943
경 북		2,695,724	2,613,745 (97.0%)	2,456,928	126,586	2,583,514	95.1	30,231 81,979
포 항	(구) 포항시	104,051	98,225 (94.4%)	92,794	4,860	97,654	95.0	571 5,826
	(구) 영일군	114,038	109,846 (96.3%)	101,962	6,165	108,127	94.3	1,719 4,192
	계	218,089	208,071 (95.4%)	194,756	11,025	205,781	94.6	2,290 10,018

2.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와 제12대 대통령 선거

정부는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선거를 1981년 2월 11일에 실시하였다.

포항의 선거인단선거 당선자는 모두 49인으로 田成萬, 孫道淳, 黃善澤, 金鎮守, 孫宗基, 申台煥, 李起宗, 金貞鎬, 咸任述, 朴承復, 李東垚, 趙星來, 朴成錄, 趙萬濟, 權周燮, 趙一千, 朴 龍, 李成滿, 尹在福, 朴斗淑(이상 포항시 20인), 高永斗, 河龍昌, 劉二根, 金永洛, 金元錫, 崔鉉直, 鄭泰秀, 朴永泰, 申千湜, 黃容模, 金相出, 朴成大, 李洪芳, 李錫允, 片富萬, 李善雨, 金好達, 朴炳洪, 黃奉澤, 金龍河, 李建春, 徐宗洙, 朴二萬, 鄭壽植, 金逸康, 鄭圭桓, 李在鏞, 金龍大, 許永泰(이상 영일군 29인)이다.

그 선거인단에 의하여 1981년 2월 25일에 제12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전두환이 제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제12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인 1981년 3월 25일에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구제는 다시 바뀌어 포항시·영일군·울릉군을 묶어 경상북도 제4선거구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었다. 선거인 235,650명에 188,44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80.0%에 이르렀고 유효투표수 187,057표였다. 이진우, 이성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전국구에 포항지역 연고자들이 다수 입후보하였는데, 민주정의당의 朴敬錫·朴泰俊과 민주한국당의 徐鍾烈·崔守桓 등 4인이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제4선거구(포항·영일·울릉) 득표상황 (1981. 3. 25)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한국당	曹圭昌	남	1925. 11.22	포항시 대흥동	아세아개발 대표이사	미국남가주대학교 대학원졸	제10대국회의원, 한미통신논설위원	16,856	
2	민주 정의당	李珍雨	남	1934. 2.10	포항시 죽도1동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	국회법사위원 서울고검검사, 입법의원	86,890	당선
3	한국 국민당	李聖秀	남	1928. 3. 1	포항시 대흥동	한국규석공업(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졸	제7대국회의원, 대한교육연합회수석부회장	35,929	당선
4	안민당	李玼雨	남	1934. 10.1	영일군 동해면	농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졸	국회의원비서관, 영남화학주식회사감사실장	7,732	
5	민권당	金文道	남	1928. 2.29	포항시 해동동	한성실업대표	대구대학 3년수료	한성실업대표	4,283	
6	민주 사회당	尹海水	남	1952. 2.14	영일군 기계면	한성화학 공업사대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후진국문제연구소장	15,092	
7	신정당	權東守	남	1940. 11.19	포항시 상원동	미술전시회관 대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수료	영남대경영대학원총학생회장, 대한미술원자문위원	20,275	

4.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 12일에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포항은 경상북도 제1선거구로 바뀌었다.

선거인 260,133명에 226,67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87.1%에 이르렀고 유효투표수는 223,996표였다. 박경석, 서종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제1선거구(포항·영일·울릉) 득표상황 (1985. 2. 12)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한국 국민당	李聖秀	남	1928. 3. 1	포항시 대흥동	국회 의원	서울대 사범대졸	제7,11대국회의원, 서울대동창회상임부회장	39,738	
2	신한 민주당	崔守桓	"	1938. 5. 7	영일군 흥해읍	국회 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수료	제11대국회의원,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316C지구부총재	30,551	
3	신민주당	崔榮萬	"	1937. 12.20	포항시 동빈로	상업	영남대 경영대학원수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위원	2,489	
4	민주 정의당	朴敬錫	"	1937. 2.11	포항시 두호동	국회 의원	서울대 대학원수료	제11대국회의원, 동아일보정치부장	86,526	당선
5	민주 한국당	徐鍾烈	"	1935. 6. 2	포항시 동빈로	국회 의원	영남대 대학원수료	제11대국회의원, 농수산위원회간사, 민주한국당중앙당총무국장	58,296	당선
6	민권당	李鎮卓	"	1943. 12.15	서울 종로구 팔관동	정치인	동국대졸	신민당조직부장, 민주협운영위원	6,396	

한편 전국구 국회의원에는 황대봉(黃大鳳)이 민주한국당 비례대표 추천순위 8번으로 당선되었다.

5. 제9차 개헌 국민투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개헌 논의가 차츰 활발하여졌다. 이른바 4.13선언으로 개헌논의를 보류한다고 하였으나 6.10시위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이른바 6.29선언이 나오면서 마침내 여·야 합의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마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이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상태여서 전례 없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절대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제9차 개헌 국민투표 개표결과 (1987. 10. 27)

지역	구분	투표인수	투표수 (투표율)	찬·반 표수 및 찬성률			무효표 기권수
				찬 성 (찬성률%)	반 대	계	
전 국		5,619,648	20,028,672 (78.2%)	18,640,625 (94.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경 북		1,882,286	1,728,173 (91.8%)	1,606,634 (94.3%)	96,308	1,702,942	25,231 154,113
포 항 시	(구) 포항시	163,531	136,289 (83.3%)	129,129 (96.2%)	5,049	134,178	2,111 27,252
	(구) 영일군	106,280	98,689 (92.9%)	91,467 (94.1%)	5,750	97,217	1,472 7,591
	계	269,821	234,978 (87.1%)	220,596 (95.2%)	10,799	231,395	3,583 34,843

6. 제13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자 정국은 곧장 대통령선거전으로 진입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190여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투표율은 매우 높았으나 대부분의 표가 노태우·김영삼 두 후보에게 집중되어 91.85%에 이르는 심각한 지방색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27% 이상을 득표한 김대중 후보의 득표는 5%에도 미달하였다.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87. 12. 16)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자수
				民主正義黨 盧泰愚	統一民主黨 金泳三	平和民主黨 金大中	기타후보	계	
전국		25,873,624	23,066,419 (89.2)	8,282,738 (36.6)	6,337,581 (28.0)	6,113,375 (27.1)	1,869,717 (8.3)	22,603,411	463,008 2,807,205
경북		1,878,025	1,709,244 (91.0)	1,108,035 (66.4)	470,189 (28.2)	39,756 (2.4)	51,039 (3.1)	1,669,019	40,225 68,781
포 항 시	(구) 포항	165,219	150,112 (90.9)	79,932 (53.9)	53,568 (36.1)	9,192 (6.2)	5,542 (3.7)	148,234	1,878 15,107
	(구) 영일	106,346	94,743 (89.1)	59,289 (64.1)	28,318 (30.6)	2,332 (2.5)	2,549 (2.8)	92,488	2,255 11,603
	계	271,565	244,855 (90.2)	139,221 (57.8)	81,886 (34.0)	11,524 (4.8)	8,091 (3.4)	240,722	4,133 26,710

※ 기타후보는

金鍾泌, 한주의統一韓國黨 申正一 등 2인임.

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이를 흔히 제6공화국이라 부른다. 새 정부는 1988년 4월 26일에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이른바 여소야대정국(與小野大政局)이 이뤄졌으나 뒤에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결성하여 의석이 과반수에 이르렀다.

선거법의 개정으로 다시금 선거구의 변동이 있어서 포항은 (구)포항시가 포항시선거구로, (구)영일군이 울릉군과 묶여져 영일군·울릉군선거구로 되었다.

1) 포항시 선거구

포항시 선거구 선거인은 168,833인으로 138,25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81.9%이고 유효투표수는 136,724표며 이진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진우는 뒤에 민정당 정책위원회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13대국회의원선거 포항시선거구 득표상황 (1988. 4. 26)

기호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정의당	李珍雨	남	1934. 2.20	포항시 해도2동	변호사	서울대 대학원졸업	11대국회의원, 청와대정무제1수석비서관	59,433	당선
2	통일 민주당	崔守桓	남	1938. 5. 7	서울시 서대문 연희2동	정치인	서울대 행정대학원수료	11대국회의원, 김영삼대통령유세부위원장	21,105	
3	평화 민주당	崔榮萬	남	1937 12.20	포항시 우현동	정당인	영남대 경영대학원수료	민주연합청년동지회장, 포항시지구당위원장		사퇴
4	신민주 공화당	李聖秀	남	1928. 3. 1	포항시 대흥동	정치인	서울대 사범대학졸업	7, 11대국회의원	46,245	
5	신한 민주당	李鎭卓	남	1943. 12.15	서울시 종로 팔판동	신한민주당 대변인	동국대 정외과졸업	민주화추진협의회운영위원, 신한민주당대변인	1,360	
6	한겨레 민주당	金丙久	남	1946. 7.20	포항시 죽도2동	노동운동가	장기중학졸업	전국연합노조경북지역부장, 전국노동자연맹중앙위원장	5,843	
7	무소속	李聖錫	남	1956. 12.27	포항시 해도2동	연구원	건국대대학원 정치학과졸업	포항지역사회연구소연구원, 중국문제연구소연구원	2,738	

2) 영일군·울릉군 선거구

영일군·울릉군 선거구의 선거인은 116,913인으로 94,14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80.5%에 이르렀고 유효투표수는 92,498표로 이 가운데 이상득 후보가 47,795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영일군·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 (1988. 4. 26)

기호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정의당	李相得	남	1935. 11.29.	영일군 흥해읍	코오통상사 사장	서울대 경제과 졸업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이사, 경주코오롱호텔사장	47,795	당선
2	통일 민주당	朴基煥	남	1948. 12.25.	포항시 죽도동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울대 경영과 졸업	경북청년회의소 회장, 한국청년회의소중앙상무위원	25,652	
3	무소속	徐鍾烈	남	1935. 6. 2.	포항시 동빈동	국회의원	연세대 행정대학원수료	11,12대 국회의원, 국회에결산위원회간사	19,051	

8.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 포항시 선거구

선거인 193,433명에 151,24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8.2%를 기록하였고 유효투표수는 149,772표로 무소속의 허화평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선거구 득표상황 (1992. 3. 24)

기호	소속 정당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자유당		남	1934. 2.20	포항시 용흥1동	변호사	서울대학원 법학과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청와대경무제1수석비서관	59,764	
2	민주당	朴基煥	남	1948. 12.25	포항시 용흥동	공인회계사	서울대 경영학과졸	민주당포항시지구당위원장, 민주당경북선거대책본부장	17,442	
3	무소속	朴成賢	남	1966. 1. 5	포항시 해도2동	포철근로자	제철공고졸	포철노조2대대의원, 민주노조3대기획실부실장	3,171	
4	무소속	許和平	남	1937. 10.15	포항시 두호동	지역사회 연구소장	육군사관학교졸	대통령경무제1수석비서관, 현대사회연구소소장	69,396	당선

2) 영일군·울릉군 선거구

영일군·울릉군 선거구에서는 선거인 128,995명 중에 97,02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5.2%이고 유효투표수는 95,354표를 기록했다. 민주자유당의 이상득 후보가 50,43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상득은 재선의원이 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영일군·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1992. 3. 24)

기호	소속 정당	후보자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민주 자유당	李相得	남	1935. 11.29.	영일군 흥해읍	국회의원	서울대상과대 경제학과 졸업	제13대국회에결산특별위원, (주)코오통사장	50,435	당선
2	민주당	金丙久	남	1946. 7.26	영일군 오천읍	정당인	독학	전국연합노조경북지부장, 민주헌법경북상임대표	12,488	
3	통일 국민당	朴敬錫	남	1937. 2.11	영일군 연일읍	정치인	서울대문리대 사학과 졸업	제11,12대 국회의원, 국정교과서(주)사장	30,630	
4	신정당	李在烈	남	1949. 5.21	영일군 오천읍	승려	독학	오어사주지, 조계종중앙종회의원	1,801	

제8절 민주화 이후

1992년 12월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3년 초에 취임한 것으로부터 2007년 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을 이 절에서 서술한다. 1989년 초에 직접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도상 민주화가 이뤄졌으나 그가 군부 출신이므로 신군부의 계속으로 보아 1999년판 시사(市史)에 따른다.

1.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되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포항지역 투표상황 (1992. 12. 18)

지역	구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자수
				민주자유당 金 泳 三	민주당 金 大 中	통일국민당 鄭 周 永	기타후보	계	
전국		29,422,658	24,095,170 (81.9)	9,977,332 (42.0)	8,041,284 (33.8)	3,880,067 (16.3)	1,876,726 (7.9)	23,775,409	319,761 5,327,488
경북		1,934,544	1,559,478	991,424 (64.7)	147,440 (9.6)	240,646 (15.7)	152,127 (9.9)	1,531,637	27,841 375,066
포 항 시	(구) 포항	196,499	159,012	97,780 (62.1)	17,304 (11.0)	25,918 (16.5)	16,355 (10.4)	157,357	1,655 37,487
	(구) 영일	122,106	95,228	58,962 (63.1)	10,453 (11.2)	14,287 (15.3)	9,777 (10.5)	93,479	1,749 26,878
	계	318,605	254,240	156,742 (62.5)	27,757 (11.1)	40,205 (16.0)	26,132 (10.4)	250,836	3,404 64,365

※ 기타후보는 신정당 , 대한정의당 李병호, 무소속 金玉仙, 무소속 백기완

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와 영일군이 포항시로 통합되어 선거구는 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울릉군을 포함한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로 나뉘었다.

1) 포항시 북구 선거구

선거인 164,962명 중에 112,54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8.2%를 나타냈고 유효투표수는 109,098표에 이르렀다. 허화평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는 12.12쿠데타에 연루되어 구속 중이어서 포항 최초의 옥중당선을 기록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득표상황 (1996. 4. 11)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신한국당	尹海水	남	1952. 2. 14	포항시 창포동	대학 교수	미국코네티컷 주립대학교졸	미국콜롬비아대학객원교수, 대통령21세기위원회간사	37,121	
2	통합민주당	方茂成	남	1941. 7. 18	포항시 두호동	정당인	고려대학교 법대졸	민주당경북선거대책본부장	9,866	
3	자유민주연합	崔鍾泰	남	1957. 8. 3	포항시 장성동	정당인	단국대학교 법학과졸업	경북지구청년회의소회장, 뉴스경북발 행인겸편집인	5,177	
4	무당파연합	崔永泰	남	1934. 10. 1	포항시 대신동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원 박사과정수료	동국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	1,834	
5	무소속	權東守	남	1940. 11. 19	포항시 흥해읍	정치인	포항수산고등학교 3년중퇴	신정사회당수석부의장, 포항시태권도협회장	2,344	
6	무소속	權寧俊	남	1955. 5. 22	포항시 학잠동	변호사	영남대학교 법학과졸업	포항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포항시민모임자문위원장	2,156	
7	무소속	申義雄	남	1940. 4. 24	포항시 용흥1동	호텔 회장	포항전문대학 졸업	KBS포항방송국보도담당부장, 광명그룹회장	2,349	
8	무소속	許和平	남	1937. 10. 15	포항시 두호동	국회의원	육군사관학교 졸업	대통령비서실보좌관, 대통령정무제1수석비서관	48,215	당선

2)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선거인 181,102명 중에 116,67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4.4%이며 유효투표수는 112,977표에 이르렀다. 이상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 (1996. 4. 11)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신한국당	李相得	남	1935. 11. 29	포항시 해도동	국회의원	서울대학교상대 경제학과졸	제13,14대국회의원, 신한국당정책조정위원장	55,105	당선
2	새정치국민회의	金萬喆	남	1939. 8. 5	포항시 해도2동	건축가	지도동국민학교 졸업	포항시새마을문고회장	4,823	
3	통합민주당	金丙久	남	1946. 7. 26	포항시 해도동	정당인	장기중학교졸	포항시지방자치연구소장, 지구당위원장	20,945	
4	자유민주연합	張俊翼	남	1935. 5. 25	포항시 연일읍	정당인	한양대 행정대학원졸업	육군사관학교교장, 제14대국회의원	32,104	

이로써 이상득은 건국 후 포항시가 배출한 유일한 3선의원이 되었으며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과 원내총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에 재임하였다.

3. 제15대 국회의원 포항 북구 보궐선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옥중당선 되었던 허화평이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반란)중요임무종사의 죄목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자 1997년 7월 24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인 166,075명 중 104,81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3.1%를 나타냈으며 유효투표수는 100,822표로 박태준이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득표상황 (1997. 7. 24)

기호	정당명	성명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신한국당	李秉錫	포항시 용흥동	정당인	고려대학교학원 정치외교학과졸업	대통령정부비서관(1급), 신한국당포항시지구당위원장	17,801	
2	민주당	李基澤	포항시 장성동	정당인	고려대상과대졸업	민주당총재(현), 제8,9,10,12,13,14대국회의원	35,137	
3	무소속	朴泰俊	포항시 용흥1동	무	육군사관학교졸 (6기)	포항제철(주)회장, 제11,13,14대국회의원	47,884	당선

4.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에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 당선자인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경북과 포항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4~5배 앞섰다. 호남권의 반대현상도 극에 이르러 지역주의의 폐단을 엿볼 수 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997. 12. 18)

지역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표 기권자수
			한나라당 李會昌	국민회의 金大中	국민신당 李仁濟	기타후보	계	
전국	32,290,416	26,042,633 (80.7)	9,935,718 (38.7)	10,326,275 (40.3)	4,925,591 (19.2)	454,854 (1.8)	25,642,438	400,195 6,247,738
경북	1,998,379	1,547,454 (79.2)	953,360 (61.9)	210,403 (13.7)	355,087 (21.8)	40,758 (2.6)	1,536,608	34,846 413,925
포항시	343,146	273,051 (79.6)	179,046 (66.6)	36,778 (13.7)	47,712 (17.7)	5,437 (2.0)	268,973	4,078 70,095

※ 기타후보 :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통일한국당 신정일

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선거구 변화는 없었다.

1) 포항시 북구 선거구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는 선거인 수 173,013명 중 62.09%인 107,422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는 105,846표로 집계되었다. 한나라당의 이병석(李秉錫)후보가 67,251표를 얻어 당선, 지역구 초선의원이 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득표수 (2000. 4. 13.)

기호	소속 정당	성 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비고
1	한나라당	이병석 (李秉錫)	남	47	포항시 용흥동	정치인	고려대학교원 정외과졸업(박사)	청와대 교육·문화·총무비서관, 포항1대학, 선린대학강사	67,251	당선
2	민주당	신원수 (申元壽)	남	54	포항시 죽도동	(주)한솔라텍스 대표이사	영남대학교대학원 졸업(석사)	강원산업총무이사 (주)경북매일 논설위원, 발행인	6,334	
3	민국당	허화평 (許和平)	남	62	포항시 기계면	정치인	육군사관학교졸업	대통령정무 제1수석비서관, 제14·15대 국회의원	32,261	

2)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서는 선거인 수 188,635명 중 64.49%인 121,655명이 투표하고 119,843표가 유효투표로 집계되었다.

한나라당의 이상득(李相得)후보가 제13·14·15대에 이어 4선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상득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 재임 중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제16대 국회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2000. 4. 13)

기호	소속 정당	성 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이상득 (李相得)	남	64	포항시 연일읍	국회 의원	서울대상대 경제학과졸	한나라당정책위의장, 국회재정경제위원장	64,067	당선
2	민주당	김병구 (金丙久)	남	53	포항시 대도동	정당인	장기중 졸	포항지방자치연구소장, 새 포항시민회의대표	10,733	
3	자민련	강석호 (姜錫鎬)	남	44	포항시 연일읍	정당인	한국외국어대 스페인학과 졸	(주)삼일부회장, 포항영신고등학교재단이사장	45,043	

6.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포항시 투표상황 (2002. 12. 19)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기타후보 (득표율)	계	
			이회창(%)	노무현(%)			
전 국	34,991,529	24,784,963 (70.8%)	11,443,297 (46.6%)	12,014,277 (48.9%)	1,104,342 (4.5%)	24,561,916	223,047 10,206,566
경 북	2,044,285	1,463,664 (71.6%)	1,056,446 (73.5%)	311,358 (21.7%)	70,164 (4.9%)	1,437,938	25,726 580,621
포 항	367,116	260,770 (71.0%)	187,612 (72.7%)	56,992 (22.1%)	13,306 (5.2%)	257,910	2,860 106,346

※ 기타후보는 이한동, 김영규, 김길수, 장세동

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년 4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1) 포항시 북구 선거구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는 선거인 수 180,925명 중 110,813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는 109,563표로 집계되었다.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가 60,58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병석은 재선의원이 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득표상황 (2004. 4. 15)

기호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이병석 (李秉錫)	남	51	포항시 용흥동	국회 의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통령정부비서관(1급), 16대국회행정자치위간사	60,580	당선
3	우리당	배용재 (裵龍在)	남	48	포항시 두호동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전)포항지역사회연구소장	23,639	
4	민주 노동당	김숙향 (金淑香)	여	34	포항시 장성동	정당인	포항선린간호 전문대학 간호과졸업	민주노동당경북도당부대표, 학교급식조례제정포항운동본부 공동대표	7,716	
5	무소속	허화평 (許和平)	남	66	포항시 기계면	정치인	육군사관학교 졸업	대통령정부수석비서관. 제14대,15대 국회의원	17,628	

2)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이 선거구에서는 선거인 수 195,239명 중 119,815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는 118,500표로 집계되었다. 한나라당 이상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상득은 5선의원이 되었고 임기 후반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 (2004. 4. 15)

기호	정당명	성명 (한 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 표	비고
1	한나라당	이상득 (李相得)	남	68	포항시 연일읍	국회 의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졸업	코오롱 사장, 사무총장(한나라당)	59,370	당선
3	우리당	박기환 (朴基煥)	남	55	포항시 동해면	공인 회계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민선초대포항시장, 대통령비서실지방자치비서관	41,440	
4	민주 노동당	서인만 (徐仁萬)	남	45	포항시 동해면	노동자	방송통신대학교 1년 수료	민주노동포항시협의회회장, 포항환경운동연합지도위원	8,067	
5	무소속	김병구 (金丙久)	남	57	포항시 연일읍	정치인	장기중학교 졸업	전국민주노동자연맹중앙의장, 지방자치연구소장	2,177	
6	무소속	김형태 (金亨泰)	남	51	포항시 해동동	무	국민대학교 정외과 졸업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센터 주간	7,437	

제9절 이명박 시대의 열림

1.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포함하여 무려 10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포항이 이명박 후보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포항시민의 관심이 컸다.

그는 포항영흥초등학교·포항중학교와 동지고등학교(당시 동지상업고등학교 야간)를 졸업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형편에 굴하지 않고 고학으로 뜻을 세웠다.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해마다 승진을 거듭하여 젊은 나이에 회장을 맡고 세계 각처의 건설현장을 누비며 일궈낸 성과, 서울시장으로 수십만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여 청계천을 복원한 업적, 아웃사이더로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지명되어 선거에서 유례 없는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명박의 진면목은 불굴의 의지와 불멸의 리더십에 있다. 생장과정이나 과거의 삶에서 강철 같은 의지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엿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표차로 낙승했다. 고향사람들의 마음도 그 선거에 함께 했다.

득표비율에서 경북은 72.58%, 포항은 82.24%에 이르렀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주민의 알뜰한 애함심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포항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큰 인물을 배출한 것은 향토의 역사에 담아 오래토록 기억하며 자랑삼아도 좋을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 포항지역 투표상황 (2007. 12. 19)

지역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무효 / 기권
			대통합민주신당 (정 동 영)	한나라당 (이 명 박)	무 소 속 (이 회 창)	기타후보 (7 인)	계	
전 국	37,653,518	23,732,854 (63.1%)	6,174,681 (26.1%)	11,492,389 (48.7%)	3,559,963 (15.1%)	2,385,847 (10.1%)	23,612,880	119,974 13,920,664
경 북	2,097,394	1,437,209 (68.5%)	96,822 (6.8%)	1,033,957 (72.6%)	195,526 (13.7%)	98,212 (6.9%)	1,424,472	12,737 660,185
포 항	385,346	277,325 (72.0%)	15,667 (5.7%)	226,944 (82.2%)	17,897 (6.5%)	15,457 (5.6%)	275,965	1,360 108,021

※ 기타 7인의 후보는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정근모, 허경영, 전 관, 금 민

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해인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되었다.

1) 포항시 북구 선거구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는 선거인수 191,854명 중 97,753명(50.9%)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는 96,754표로 집계되었다.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득표상황 (2008. 4. 9)

기호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통합 민주당	오중기 (吳仲基)	남	1967. 7.23.	포항시 우현동	포항리더십 포럼대표	영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통합민주당경북도당부위원장 영남대학교총동창회상임이사	5,609	
2	한나라당	이병석 (李秉錫)	남	1952. 10.28.	포항시 용흥동	국회의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대통령정무비서관(1급), 16,17대 국회의원	60,610	당선
6	평화통일 가정당	박승우 (朴勝禹)	남	1964. 10.25.	포항시 죽도2동	(사)세계평화연합 경상북도회장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졸업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경상북도회장	1,098	
7	무소속	허명환 (許明煥)	남	1960. 8.15.	포항시 항구동	정치인	미국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졸업 (정책학박사)	(전)청와대사회정책행정관 (전)한나라당중앙당부위원장	29,437	

이로써 이병석은 3선의원의 반열에 오르고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장에 피선되었다. 또한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땅 우리역사 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는 선거인수 203,214명에 99,607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는 98,229표였다. 한나라당 이상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상득은 지역구 6선을 기록하여 현역 국회의원 중 최다선의 영예를 얻었다.

제18대 국회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득표상황 (2008. 4. 9)

기호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통합 민주당	허대만 (許大萬)	남	1969. 4.20.	포항시 상도동	정당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포항시의회의원 (현)민부정책연구소소장	16,767	
2	한나라당	이상득 (李相得)	남	1935. 11.29	포항시 연일읍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주식회사코오롱사장 (현)국회부의장	68,392	당선
6	평화통일 가정당	백운학 (白雲鶴)	남	1955. 3. 8.	울릉군 울릉읍	정당인	울릉종합고등학교 졸업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부위원장, 타임즈항공 울릉도모기지유사업단 대표	2,337	
7	무소속	이성석 (李聖錫)	남	1956. 12.27	포항시 오천읍	동국대학교 검임교수	건국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졸업	(전)박근혜대표포항시특별보좌역 (전)13대총선포항시출마	10,733	

참고문헌

- 육군대학, 《戰史研究》상, <포항지구전투>.
 《6·25사변 육군전사》 3권, 附圖.
 육군본부, 《유엔군전사》<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 196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3·4, 1971.
 중앙일보사편, 한국전쟁실록《민족의 증언》, 을유문화사, 1973.
 南相瑄·金晩圭, 《6·25와 학도병》3사단 학도의용군편, 1974.
 金陽明, 《한국전쟁사》, 日新社, 1976.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부도, 1981.
 (사)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韓國學生建國運動史》, 1986.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한국전쟁사》, 1987.
 崔再煥, 《학도의용군 참전개요》(동해지구 6·25 참전실록), 1988.
 崔基榮, 《6·25 학보의용군 참전기》, 198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3·4권, 행림출판사, 1992.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Ⅰ·영남편, 여강출판사, 1993.
 朴一天·鄭基福(독립유공자이며 현 광복회 회원)·金珍日·李相勳·崔基榮 제씨 증언.
 기계면 화대리 용화사 경내 비문(권태홍 대위 기록) 참고.